

2019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 받아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 제334009호)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실태와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전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조사기관

교육부 주관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며,
현장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수행합니다.

조사기간

2019년 7월 1일 ~ 8월 31일

조사대상

전국 표본 가구의 만 25세 이상 만 79세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홈페이지

<http://kalls.gallup.co.kr>

행복한 교육



Vol. 444. 2019. 7.



다가오는 여름방학, 안전 더 안전하게!
“고교 무상교육이 궁금해요”
Z세대를 위한 교육

Story

JULY 2019 Vol. 444

12



20



24

COVER STORY

뜻하지 않는 순간 누구에게나 위기의 순간은 온다. 그곳이 물속이라면 학창 시절 배운 '생존수영'이 목숨을 지키는 소중한 열쇠가 될 것이다. 서울 우암 초등학교(교장 이순임) 6학년 아이들이 한강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다. 희뿌연 물살을 헤치며 실제상황을 대비해 체온을 유지하며 구조신호 보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

3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4

Contents

특별기획

- 02 다가오는 여름방학, 안전 더 안전하게!
- 04 안전교육의 첫걸음,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
- 06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_ 인천박문초, 나사렛새꿈학교
- 10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 _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 14 선생님이 먼저 배우는 학교 안전 동아리
- 16 7개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마련

현장이야기

- 20 우리교실 프로젝트 광주수안초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24 삶과 교육 송이호 파주 새얼학교 교사
- 28 꿈이 영그는 현장 교실 속 작은 숲 '마음풀'
- 32 아하! 진로체험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느끼는 역사의 현장
- 34 창업공방 공희준 칠명바이오 대표
- 36 명예기자 리포트 쿠웨이트 교육현장 외

정책이야기

- 42 정책N전망 학교공간혁신사업과 미래학교
- 44 이슈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 46 정책 토크 "고교 무상교육이 궁금해요"
- 50 교육부 JOB 고졸 성공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53 초점 중앙교육연수원의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 54 대학교육 대학 강사의 고용안정과 고등교육의 질 개선
- 59 꽃 피는 교육자치 내가 선택한 과목으로 행복한 날, '해피교과데이!' 외

정보이야기

- 62 교육포커스 Z세대를 위한 교육 외
- 66 교육 소확행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 68 아이의 다락방 '마마걸'이 된 미연
- 70 교사상담실 한 학기의 학생 생활기록,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 72 이야기 인문학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본 빈부격차
- 74 일상의 씬표 하늘길과 바닷길 사이 도시, 사천을 머금다
- 78 뉴스 브리핑 초등 예비교원 SW교육 지도 역량 높인다 외
- 80 행복 게시판



다가오는 여름방학, 안전 더 안전하게!

1. 안전교육의 첫걸음,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
2.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_ 인천박문초, 나사렛새꿈학교
3.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 _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4. 선생님들이 먼저 배우는 학교 안전 동아리
5. 7개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마련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20~30명이 목숨을 잃는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를 살펴보면, 20세 미만이 34.3%를 차지하며, 특히 10~19세 미만이 29.1%로 나타났다. 어린이 혹은 청소년과 동행한 보호자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7월 중하순을 기점으로 전국의 유·초·중·고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을 맞는다. 여기서는 생활 속 안전의식을 키우는 학교안전재난 현장과 생존수영 현장을 소개한다. 또한 범정부차원에서 물놀이 안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소개한다.



강원도교육청이 인제군에 위치한 어론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이동식 수영장 인근에 위치한 한계초등학교 학생 17명이 이곳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고 있다.



글_ 이상희 소방청 119소방안전과 소방령

안전교육의 첫걸음,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



안전불감증 vs 올바른 인식

‘인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일’이라고 적고 있다. 필자는 이 말에 ‘올바른’이라는 말을 더해 ‘올바른 인식’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올바른 인식이라는 말은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의 ‘불감’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도 억지가 아닐 듯싶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 ‘안전불감증’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 말은 결국 ‘사물을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해 알지 못함’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서론이 길었으나 결론은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보다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올바른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유 있는 삶 추구하는 현대인, 폭염 속 물놀이 증가

올해도 어김없이 여름이 오고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필자도 유년시절 무더위를 피해 한 걸음에 달려갔던 외갓집에서의 추억이 떠오른다. 냇가에서 물놀이하고 원두막에 앉아 모깃불을 피워놓고 수박과 참외를 먹으며 귀신 이야기를 듣던 낭만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떠나보낸 지 오래지만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건 여유가 그리운 나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현실일 것이다.

워라벨과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는 가족이나 친구, 단체와 함께 떠나는 여행과 캠핑, 레저문화를 즐기는 추세이며 폭염과 열대야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바다와 계곡을 찾

아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이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즐거워야 할 여름방학이 순간의 선택과 ‘아차’하는 순간의 실수로 인해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물(계곡)로 떠밀지 마라

여름방학 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과 물에 빠져서 발생하는 익수사고, 벌 쏘임 등을 들 수 있다.

사망까지 연결되는 열사병과 익수, 벌 쏘임을 안전불감증으로 매도하기엔 한계점이 있다. 횡단보도는 과란불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기 귀찮아 그냥 건너는 무단횡단과는 다르게 폭염이나 물놀이는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사고 현장 경험을 통한 물놀이 안전을 이야기한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착용, 물놀이 가능 표시가 있는 곳,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 혼자 물놀이를 하지 말고 2명 이상이 함께 할 것(어린이는 어른과 함께), 수영을 과시하거나 자신하지 말 것, 계곡에 갈 때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계곡에서는 발을 다칠 수 있으니 신발을 신을 것, 음식물은 충분히 소화를 시킨 후 물에 들어가고, 준비운동을 할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물가나 계곡에서 장난으로라도 친구들을 물로 떠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심폐소생술이나 소독과 지혈 정도의 응급처치 상식을 갖고 있다면 금상첨화!!



여름방학 전, 119안전체험관 꼭 방문하길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기회가 된다면 가까운 119안전체험관이나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아보자. 과거에는 주변의 어른이나 친구들로부터 배웠다면 이제는 체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물놀이 안전사고는 깊은 물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가슴 높이도 안 되는 물에서 갑자기 깊어지거나 발이 닿지 않아 허둥대다가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익수사고가 발생하면 수영을 못해서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수영 실력을 과신하여 깊고 먼 곳까지 갔다가 탈진 또는 다리 경련이 발생하여 사고로 연결되고 있다. 구명튜브나 조끼 착용도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제품 자체가 단순한 물놀이용인지 인명구조용인지를 살펴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고 올바른 착용법을 통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의식은 반복적 학습과 습관화를 통해 얻어진다

안전의식은 결국 안전에 관한 지식과 체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얻어지는 습관화만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올바른 지식 습득과 체험이 필요하며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검색할 때에도 꼭 검증된 자료인지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어린이 친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물가나 계곡에서 장난으로라도 친구들을 물로 떠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필요하고 안전교육의 첫걸음은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이번 여름방학은 출발하기 전에 온 가족이 119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다. ②

TIP 심폐소생술 순서와 방법

1 심정지 상태 확인하기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괜찮으세요?”를 외치면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2 119 신고 및 도움 요청하기

환자의 의식(반응)이 없으면 큰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한다.

3 호흡 확인하기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준비한다.

4 가슴압박 30회 시행하기

각지를 낀 두 손의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압박점을 찾아 30회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압박깊이는 약 5cm(소아는 4~5cm), 압박속도는 분당 100~120회를 유지한다.

5 기도개방하기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서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다.

6 인공호흡 2회 시행하기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킨 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인공호흡 방법을 모르거나 꺼리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한다.

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반복하기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한다.

8 회복자세 취하기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대한심폐소생협회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_ 인천박문초, 나사렛새꿈학교 “학교 안전, 우리 힘으로 만들어요!”

안전은 몸으로 배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평상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훈련은 교사와 초등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훈련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는 5주차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 4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시범 실시한 특수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참여, 5개교가 함께 했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에 참여한 학교 현장을 소개한다.



나사렛새꿈학교 어린이 재난안전 실전 훈련



인천박문초등학교 학생 주도 훈련으로 안전의식 UP

주차장 앞 배수구가 어긋나 있어! 대피하다 발에 걸리면 다치지 않을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급식실 배수구도 위험해! 대피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음악실 앞 신발을 신는 나무판도! 발에 차이면 움직이기 때문에 대피 시 위험할 수 있어!

학생들이 직접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찾아낸다. 학교 안팎을 주의 깊게 살피며 만든 인천박문초등학교(교장 박원희)만의 화재 대피지도.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주간 진행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의 일부다.

인천박문초 안전교육 담당 정승진 교사는 “모둠별로 학교 안전위해요인을 찾는 활동에서 학생들은 놀라운 발견을 거듭했다.”라며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였다.”라고 평가한다.

대피지도 제작 등 5주간 맞춤형 훈련

5주 훈련과정은 재난 유형을 선정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학교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인근 봉재산 산불이 학교 옥상으로 옮겨 붙은 상황을 가정해 훈련 계획을 세웠다. 이후 불시에 진행된 화재대피 상황. 불시 훈련을 통해 문제를 진단한 학생들은 전교생이 안전하게 재난에 대처하도록 역할을 나누고, 재난별 특성에 대한 이론교육에도 참여했다. 4학년 서은채 학생은 “안전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로 우리 학교 주변에서 산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재난안전훈련을 더욱 실전처럼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응급처치를 배웠다. 다리에 부목을 대고 친구를 부축했는데, 앞으로 아픈 친구를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뿌듯해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높였다. 3주차에는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 지역 소방서를 찾아 화재유형에 따른 진화법 등을 배웠다. 이를 토대로 학급별 대피지도도를 만들고 훈련을 위한 시나리오도 작성했다. 마지막 날 학생들은 경찰서,

소방서 등이 참여하는 실전 훈련에 나섰다. 훈련 기간에는 국제연합(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 컨설팅 교수 등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육과 훈련 컨설팅을 도왔다. 정승진 교사는 “처음에는 웃고 떠들던 학생들이 생명을 구하는 훈련임을 깨달으면서 차츰 진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

지난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만족도 조사 결과, 지식향상도와 자신감 등이 5점 만점에 4.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중심이 된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협업하고 토의하며 함께 성장한 것이다. 4학년 김시연 학생은 “우리가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화재가 일어난 상황에 대처해보니 더 책임감이 생겼다. 재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라고 말한다.

인천박문초는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계기로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천박문초는 현재 1주일에 한 번 아침 방송을 통해 나침반 안전교육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행하고 있다. 매일 등교시간, 점심시간마다 ‘안전지킴이’들이 안전생활 캠페인 활동을 한다. 정승진 교사는 “안전교육에 왕도가 없다.”라며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다. 특히 실제 사고사례를 활용하는 등 실전감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인천박문초의 학생 주도 실전 훈련

나사렛새꿈학교 학교-지역이 함께 만드는 안전

충남 천안 나사렛새꿈학교(교장 정영숙)는 영아부터 유·초·중·고등학교 중도중복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 135명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마지막 날, 나사렛새꿈학교에는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돈다. 6월 26일 오전 11시, 재난 경보음이 울리고 3분 뒤 1층 급식실에서 터진 연막탄으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1층 급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남 당진시 동북쪽 10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 이로 인해 학교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으로 실전 훈련은 진행됐다. 교실에서는 그간의 연습을 보여주듯 신속하게 비상탈출구를 확보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재난방재 모자를 서둘러 착용했다. 거동이 어려운 친구들은 들것과 휠체어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교직원들의 대응도 재빨랐다. 5주간의 사전 훈련으로 역할을 숙지한 대피유도팀이 경광봉으로 대피소를 안내하는 사이 지역 소방서, 경찰서, 시청, 보건소 관계자 등이 현장에도 도착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

훈련 시간 15분 만에 무사히 대피 완료. 소방관은 굴절사다리차로 5층 클린룸(도서관)으로 대피한 학생과 교직원을 구조하고, 운동장에서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동시에 진행한다. 보건소 의료진은 이탈 학생에게 신속한 심리 안정을 지원, 재난이 발생한 지 28분 만에 재난 대피 상황은 모두 종료됐다.

소방서·경찰서·시청·보건소 등과 함께 실전 훈련

“대대적으로 지역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재난안전훈련을 한 건 개교 이래 처음입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나사렛새꿈학교 정영숙 교장은 모든 훈련이 종료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등 약 30명 이상이 참여하고, 굴절사다리차와 펌프차, 구급차, 경찰차 등이 동원되며 실전 상황을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들은 5주간 모의 훈련과 현장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 참여로 시나리오, 매뉴얼, 안전 대피지도 등을 만드는 등 안전문화 의식도 높아졌다. 5주간 멘토로 함께 한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박대홍 대장은 “화재뿐 아니라 지진 발생까지도 고려해 세밀한 훈련 계획을 세웠다.”며 “안전훈련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적극적인 지지로 성공적인 훈련이 이뤄졌다.”며 뿌듯해했다.

학교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졌다. 대피 시 보다 안전하도록 앞이 막힌 실내화로 모두 교체하는가 하면, 재난안전 용품을 보완하고, 층별 비상대피 안내도도 새롭게 바꿨다. 앞으로 대피로 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에도 지역교육청과 해결하기로 하는 등 학교 안팎의 안전시설물도 훈련 과정에서 세심하게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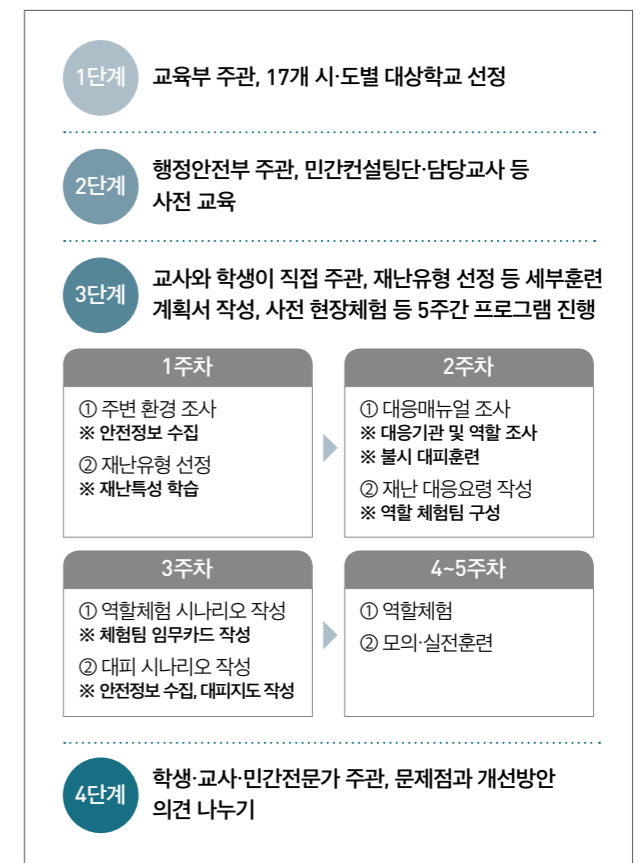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필요

나사렛새꿈학교 안전 담당 김태윤 교사는 “특수학교는 재난 상황이 대형 인재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훈련이 중요하다.”며 “안전 매뉴얼은 모두 알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교사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졌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 훈련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학교와 지역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일이다. 조선희 천안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장은 “특수학교는 대피의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굴절사다리차까지 동원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관들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를 고민하게 됐다.”라고 전한다. 그러나 실전처럼 무작본 훈련을 통해 평상시 훈련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대피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하는 일. 5주간 훈련을 모두 마친 김하은(고3·뇌병변장애 1급) 학생은 “학교에서 대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직접 듣고 체험하면서 다시 한 번 안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라고 활짝 웃었다.

[그림1]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추진 과정



대피지도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는 교사와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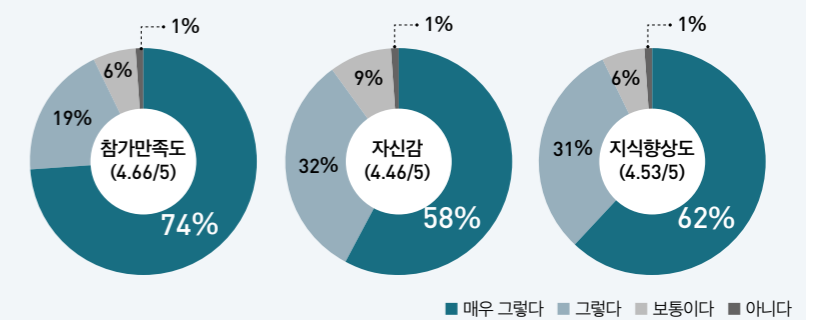


보건소 의료진의 이탈 학생 심리 지원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한 실전 훈련

[그림2] 참여 학생의 훈련 및 재난에 대한 지식 습득에 대한 만족(4.54 / 5.0)



물놀이 안전교육 생존수영 _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위기상황 속 부력이용 '나의 생명' 지킨다



학생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 폰톤 위에서 체온 유지법을 연습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까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조난사고에 물 위에서 살아남는 생존수영 교육의 필요성이 더없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들의 수영 실기교육을 매년 확대해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 상황 시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영장을 벗어나 한강에서 실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심 생존수영 교육지원센터'를 지난해 개관했고, 강원도교육청은 거점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해 학교 인근에 수영장이 부족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 현장을 찾아갔다.

요즘 서울 송파구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에서는 구명동의 물 입은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한강을 헤엄쳐 이동하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안심 생존수영 교육지원센터'의 생존수영 교육 모습이다. 안심 생존수영 교육지원센터는 강이나 바다에 빠지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한강에서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박정규 센터장은 "지난해 4,2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했고, 올해는 5,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평일에 매일 교육이 진행되는데, 신청이 많아 경쟁률이 치열하다."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생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면, 올해는 초5~중1까지 대상이 확대돼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방학 중인 8월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생존수영교실을 열어 가족 단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뤄진다. 더 많은 학생이 생존수영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독섬지구에도 추가로 센터를 만들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한강서 배우는 리얼리티 생존수영

지난 6월 25일에는 서울 우암초등학교(교장 이순임) 6학년 학생 48명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은 이론 수업과 실전 수업으로 나뉘어 총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학생들은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 수련지도사로부터 구명동의 착용법, 입수법, 누워뜨기, 기본배영 자세, 체온 유지법, 구조신호 보내기 등을 배운 후 한강에 마련된 폰톤(수상연결부교)으로 이동해 실전 연습을 시작했다.

"입수한 후에는 몸에 힘을 빼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펼쳐 물 위에 눕습니다. 양쪽 귀가 물에 잠길 정도로 턱을 최대한 들어주는 것이 좋은 자세예요. 그 상태에서 반대편까지 체력 소모가 최소화되도록 천천히 헤엄칩니다." 이승호 지도사의 설명에 따라 학생들은 물 위에 편안히 몸을 눕히고 배영을 시작했다. 보조 강사들이 붙어 자세 잡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처음 물에 들어가 긴장한 학생들도 무리 없이 해냈다. 매 교육시간에는 보조 강사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전문 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한다.

폰톤에서의 연습이 끝나고 비상 탈출용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한강에 뛰어든 학생들은 실제 사고상황과 마찬가지로 둥그랗게 원 모양으로 모여 체온 유지법과 구조신호 보내기를 시행했다. 이후 한강 한가운데에 있는 구명벌까지 기본 배영으로 150m가량 헤엄쳐 가는 것이 마지막 미션. 흐르는 물살을 이겨내며 힘겹게 구명벌에 도착한 학생들은 뒤늦게 도착한 학생들이 구명벌 안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끌었다. 박도현 학생은 "위기 상황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했다."라고 전했다.



지상에서 배운 입수법을 활용해 물에 처음 들어가는 모습



비상 탈출용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한강에 뛰어들면 실전 연습이 시작된다.



강원 어른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이동식 수영장

학생들 “생존수영, 위험에 대비해 꼭 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권채운 학생은 “실내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교육을 배워본 적이 있지만, 한강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 보니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구하은 학생은 “한강에 들어가니 넓고 깊어서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실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생존수영 교육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 수영 실기교육 10시간(생존수영 4시간 포함) 이상 편성 및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4시간의 생존수영 교육시간을 채우는 것도 지역 및 시설여건을 고려하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전문 지도사 수 부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안심 생존수영 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지도사 1명당 10명의 학생을 돌볼 수 있도록 한 수업에 최대 60명의 학생들을 받고 있다. 이승호 지도사는 “수업 중 특히 물을 무서워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지도사가 전담으로 붙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을 한 명 한 명 챙기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어른초등학교(교장 이재기) 운동장에는 커다란 구조물이 설치돼있다. 이 구조물의 정체는 바로 이동식 수영장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해 인근에 수영장이 부족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작년에는 강릉과 홍천에, 올해는 인제와 양구 지역에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영월과 태백 지역에서도 운영할 예정이다.

같은 인제군에 있는 한계초, 기린초, 하남초, 부평초 학생들은 지난 6월 말부터 에듀버스를 타고 어른초에 와 생존수영 교육을 받았다. 이재기 어른초 교장은 “강원도 내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고, 지역적 인프라도 부족해 인근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1개뿐이다. 올해에는 다행히 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이 설치되면서 이론이 아닌 실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지역 인프라 한계 극복...날씨·기온 영향 없이 교육 가능

이동식 수영장은 에어돔 내부에 길이 15m, 폭 5m, 높이 1.2m 규모의 풀장과 이동식 샤워장, 탈의실이 마련돼 있다. 수질 정화시설과 수온 유지 설비가 갖춰져 있고, 에어돔 형태여서 바람과 비, 미세먼지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할 수 있다.



생존수영 중 누워뜨기를 연습하는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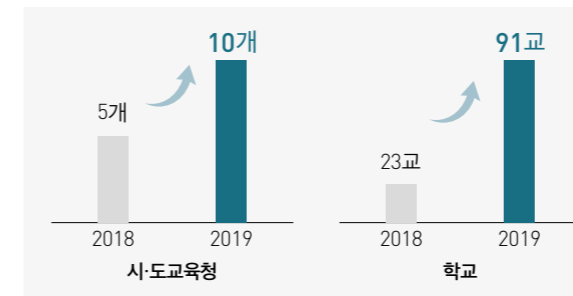
지난 6월 24일에는 한계초 학생 17명이 생존수영 교육을 받기 위해 어른초를 방문했다. 이날은 한계초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첫 시간으로 물속에서 호흡하기, 잠수하기, 누워뜨기 교육이 이뤄졌다. 처음에는 물속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조차 겁내던 학생들이 교육이 진행되면서 점차 물 위에 편안히 누워 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김연지 학생(4학년)은 “오늘 처음 생존수영 교육을 받아봤는데, 코에 물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재밌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김수민 지도사는 “저학년 학생들은 특히 물을 처음 접하면서 공포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충분히 물과 친해질 시간을 주면 이내 잘 적응한다.”라며 “물에 뜨는 것은 생존과 직관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생존수영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지도사는 “교육시간이 부족해 중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누워서 1분 떠 있기와 생존수영으로 15m 이동하기 등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수영 예산 7억→12억...이동식 수영장 확대 예정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 울산, 강원 등 5개 지역 23개교에서 시범 운영했던 것이 올해는 서울,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대구, 인천, 경기 10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돼 총 91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이중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수영교육 지원 예산으로 10억을, 이동식 수영장 지원 예산으로 2억을 받아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 수영 관련 예산만 지난해와 비교해 5억 원이 더 늘어난 수치다. 권희진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는 “타 시·도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수영장 수는 물론 학생 수도 적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하면 관련 예산을 무조건 늘리기는 힘들다.”라며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원도 지역 학교에 이동식 수영장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림]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 교실 운영 현황



선생님이 먼저 배우는 학교 안전 동아리 교사 집단지성의 힘! ‘학교안전 지킴이’

전국에 70여 개 초·중·고 교사 안전 동아리 운영
수업 아이디어,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 개발 중
실제 위기 상황 속 학생, 교사의 대처능력 높여

최근 국내외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전국 7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안전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교사 안전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세종시의 사례를 소개한다.

알쓸 신안

새롬초, 교사 안전지킴이 ‘알쓸신안’

새롬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교사 안전 동아리인 알쓸신안(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나는 안전교육연구회)을 결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체험형 안전체험교실에 참여하면서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동아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하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동아리를 결성하게 되었다. 새롬초는 안전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크게 3가지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다.

2018학년도 1학기에는 안전체험관을 구축하기 이전에 먼저 교원이 안전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7대 표준 영역 51차시 이상의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하는 데 필요한 안전체험관 답사, 안전체험 실습, 연수 등을 받으면서 역량을 신장시켜 나갔다. 다음으로 2018학년도 2학기에는 체험교실이 없을 때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안전교육의 주제를 설정하여 지도안을 짜고,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자료를 만들어 수업에 적용하였다.

올해에는 9명의 선생님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내에 안전체험관이 개관되어 4월부터 교육과정상에 안전체험관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사들과 공유하였다. 그 결과 담임선생님들이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안전체험관 안에는 완강기체험, 소화기체험, 가스·전기·지진 안전체험, 화재대피체험, 응급처치역할체험, 긴급통화장치 앱 사용법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다.

현재 2019학년도 2학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안전체험관 홍보 및 안전교육 홍보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다. 전보현 교사는 “연말에는 연구한 자료를 안전공제회 사이트에 올려서 다른 학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싶다.”라며 “내년에는 안전체험관을 다른 학교에 개방해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고 싶다. 이렇게 안전 동아리 운영으로 안전 체험관이라는 안전 환경이 생겨 학생이 직접 활동과 체험을 통해 안전에 대한 안목이 커지고, 생각하는 힘이 커진 것 같다.”라고 말한다.

두루 안전 동아리



두루고, 범죄예방프로젝트 ‘두루 안전 동아리’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두루고등학교에서는 10여 명의 교직원들로 구성된 ‘두루 안전 동아리’가 운영 중이다. 올해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재웅 교사는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를 통해 학교 안전 환경을 구축하여 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다른 학교에도 이런 안전 환경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보고자 한다.”라고 설명한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의 약어로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CPTED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무·화단 조성이나 벽화 그리기 등도 CPTED의 한 방편이다. 조재웅 교사는 “7월에는 CPTED 기법이 적용된 기관 및 현장을 답사하여 필요한 부분을 두루고 내에 적용해 보고 싶다.”라며 “현재 두루고 안에는 학생들이 돌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길과 화단이 있는 만큼 이를 더 발전시켜 활용하고 싶다.”라고 설명한다.

프로그램 개발

교사들 뜻 모아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 개발 중

이들 교사들은 교사 안전 동아리가 없었을 때는 담임교사 중심으로 안전교육 영상이나 PPT 자료를 활용해 안전교육을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교사 안전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여러 선생님과 함께 안전에 대해 고민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아이디어를 모으고 체험형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활동으로 이뤄져 동아리 교원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높다고 한다.

그리고 혼자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 명의 교사가 모여 함께 함으로써, 안전 역량을 신장하여 이를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실제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 대처 능력과 대응 행동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7개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마련 여름철 물놀이, 편안하게 즐기세요!

유기적 안전관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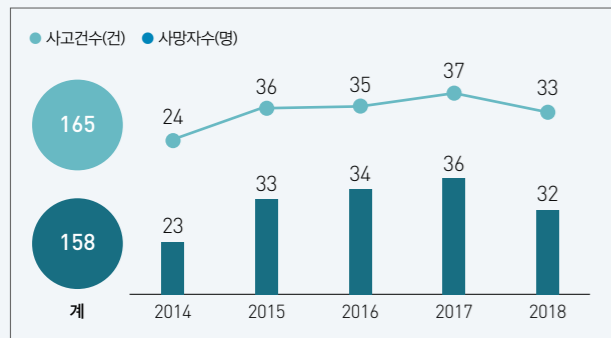
7월 중하순을 기점으로 전국의 유·초·중·고교가 일제히 여름방학을 맞는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8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부주의, 수영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여름철만 되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20~30명이 목숨을 잃는다. '17년에는 3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7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에는 3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또한 최근 10년간(2009~2018) 여름철 물놀이 사망사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세 미만이 34.3%를 차지하며, 특히 10~19세 미만이 29.1%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보호와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강,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 안전관리가 소관 부처별로 추진되었던 것을 물놀이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교육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기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물놀이 사고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표1] 여름철 물놀이 사고 현황

단위: 건 명



자료: 행정안전부

[표2]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자 현황(원인별)

단위: 명

구분	계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튜브전복	높은파도(급류)	기타
2018	33	7	10	4	5	2	5
2017	37	8	9	6	8	2	4
2016	35	9	10	6	1	8	1
2015	36	6	10	9	2	7	2
2014	24	6	12	3	-	3	-

자료: 행정안전부



매년 물놀이 안전사고로 20~30명 목숨 잃어
물놀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사고 최소화
안전시설·장비 확충, 사고예방 및 긴급대응에 만전

[그림1]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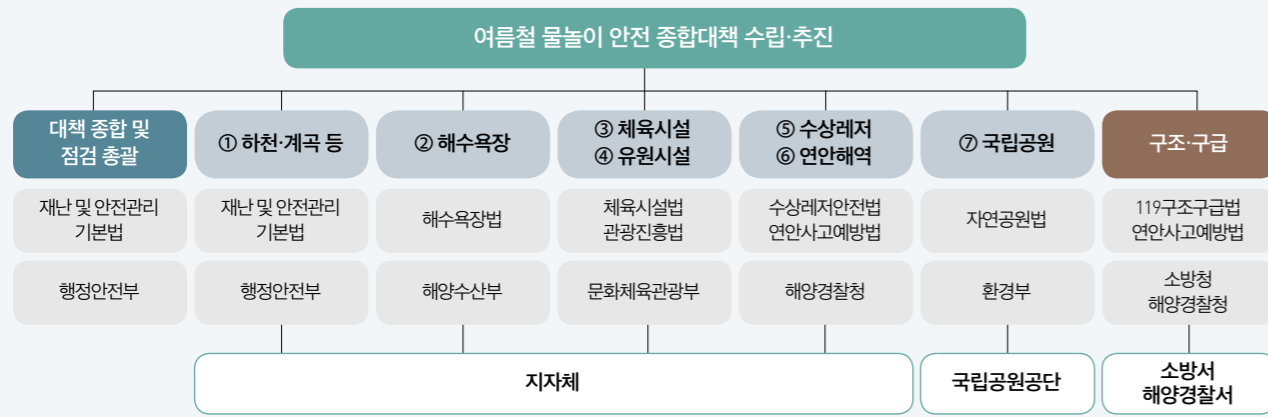
물놀이 안전 관계 부처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번 '여름철 물놀이 안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먼저,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처음으로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물놀이 안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합동점검, 사고예방 홍보 및 교육,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물놀이 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여름방학 전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사고발생 대처요령 등 물놀이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물놀이 안전 정책협의체는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행안부·교육부·문체부·환경부·해수부·소방청·해경 과장급이 참여한다. 지역별로도 현장 상황에 맞는 해수욕장협의회, 지방연안사고 예방협의회 등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점검, 물놀이 환경 정비, 예방 캠페인 등 지역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림2]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② 물놀이 안전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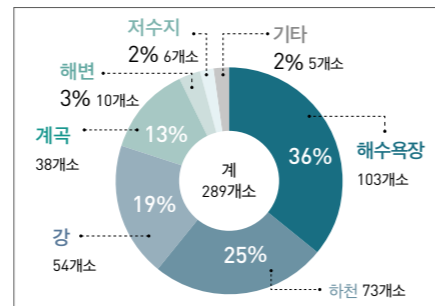
또한, 물놀이 안전 환경을 개선하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강, 계곡의 물놀이 지역 1,202개소에는 구명조끼, 구명환 등의 안전장비(7종, 33,082점)를 비치하고 271개 해수욕장에는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수상오토바이를 배치하는 등 안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여 물놀이 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에 만전을 기한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놀이 사고취약지역 등을 정비하고 개선한다. 사고다발지역, 안전사고 우려지역 등 물놀이 위험구역에는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취약시간 순찰을 강화하여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물놀이 위험구역 내수면 265개소, 국립공원 84개소, 내수면 관리지역 1,202개소, 국립공원 사고우려지역 43개소를 지정·운영한다.

③ 현장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국 289개 물놀이 지역에 소방공무원(1,554명)과 민간자원봉사자(5,384명)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편성·운영하여 수상·수중 인명구조, 예찰활동,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피서객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일선 소방서 내에서도 사고대응을 위한 구조대 4,402명을 편성·운영하고 지자체도 일 최대 6,587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해수욕장에 물놀이 전담 안전관리반을 배치, 수난구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그림3] '19년 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장소



사고 빈발지역에 고정 배치하는 한편, 사고 다발시간대에 집중 배치한다.

특히, 물놀이 성수기가 본격 시작되는 6월 중순부터 강, 계곡, 해수욕장, 국립공원, 물놀이 유원시설 등의 모든 물놀이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안전관리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행안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 확인점검도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해운대, 대전, 중문, 경포대, 송정, 낙산, 임랑해수욕장 등 7개소에 실시간 이안류 감시서비스를 설치하여 영상 및 문자를 통해 이안류 예측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④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한 물놀이 사고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안안전의 날(7.18)'과 연계한 물놀이 안전 캠페인 및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여름방학 전에 유·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특히 초교 2~6학년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등 수영실기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생존수영 4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연간 10시간의 수영실기교육을 해오고 있다. 그밖에도 수상안전교육 지도 및 응급처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원 및 전문직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피서객(해수욕장·계곡 등), 탐방객(국립공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수상레저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 프로그램 교육도 강화한다.

⑤ 물놀이 안전관련 제도 개선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 실시를 계기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 및 대국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안전수칙 준수 필요

이를 위해 6월말~7월말까지 물놀이 장소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주요 물놀이 지역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현장점검(2회 이상)과 안전관리 요원 배치를 강화하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부처별로 물놀이 사고 및 안전관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합동 워크숍을 갖고 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배진환 재난협력실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구명조끼 입기와 같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②



광주수완초등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녹색커튼’ “우리학교 자연 친구를 소개합니다”

‘푸르름’은 거대한 생명력을 지녔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수완초등학교(교장 황창녕)는 열섬화 현상에 과대,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사(校舍)를 증축하면서 교내외에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는 작두콩을 재배하여 건물 외벽에 녹색커튼을 만드는가 하면, 상자텃밭을 이용해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며 1,800여 명이 훌쩍 넘는 학생들과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완초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속으로 들어가 보자.

매일 만나는 우리학교 식물들…

큼지막한 상자텃밭에 가지, 오이, 상추, 고추, 케일, 양배추, 들깨, 토마토 등 갖가지 작물들로 가득 찼다. 예쁜 꽃들도 교내 화단이 아닌 상자텃밭에서 친구들을 맞는다.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1학년 30여 명의 아이들이 우르르 화단 앞으로 쏟아져 나온다. 주렁주렁 매달린 방울토마토를 신기한 듯 바라보는 아이에서부터 제 몸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지 축 늘어진 오이를 바라보며 툭툭 건드려보는 아이, 고춧대에 서로 크기가 다른 고추들이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아이 등등 평범했던 상자텃밭이 순식간에 생태학습장으로 변했다.

요리조리 관찰한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개발해 각급 학교에 배포한 자연관찰 학습지 ‘빛고를 초록사랑’에 빼곡하게 기록한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기록하는 여덟 살의 눈빛은 매우 매섭고, 그림을 그리는 손은 분주하다.

오늘은 우리 반 유기농 쌈밥 먹는 날!

자연관찰을 끝낸 1학년들이 교실로 사라지자 이번에 4학년들이 상자텃밭 앞으로 모여 들었다. 씨앗을 심어 모종을 기르고 텃밭에 옮겨 키워낸 작물들이 어느덧 먹음직스럽게 자란 것이다. 오이줄기가 상할까, 상추가 꺾일까 조심하며 정성스레 길러낸 상추와 오이를 요령껏 수확한 아이들이 깨끗하게 씻은 후 상자텃밭 앞에 돛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다. 자신들이 길러낸 상추 위에 학교에서 준비한 밥과 쌈장을 얹어 크게 쌈을 찐다. 그 맛은 상상 이상이다. 4학년 2반 박한별 학생은 “우리가 길러낸 상추로 쌈을 먹으니 다른 반찬이 없어도 너무 맛있다.”라며 “오이를 처음 먹었는데, 아삭아삭 맛있다.”라고 말한다.

강보준(4학년 2반 담임) 교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교 숲을 조성하여 생태연못, 상자텃밭 등 생태·환경교육을 해오고 있다.”라며 “장소는 협조하지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등교시간, 중간놀이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을 이용해 식물이 커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직접 수확하는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 1 “무럭무럭 자라렴” 수완초등학교에 조성된 수세미 녹색커튼을 아이들이 관찰하고 있다.
- 2 상자텃밭에서 수확한 상추와 오이
- 3 상추에 밥과 쌈장을 얹어 “꿀꺽~”



녹색커튼을 아십니까?

수완초는 상자텃밭과 더불어 올해 2년째 작두콩의 한 살이를 통해 생태·환경교육을 하는 ‘녹색커튼과 함께 커가는 ESD 역량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녹색커튼은 건물 외벽이나 터널형 시설물에 나팔꽃, 수세미, 여주, 작두콩 등 덩굴식물을 심어 그 잎과 줄기가 건물에 커튼 형태로 드리우게 만드는 기법으로 건물 외벽에 조성된 녹색커튼은 증산 작용과 그늘 효과가 있어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학교는 30m 정도를 화단으로 조성하고 화단에서부터 건물 꼭대기까지 밧줄로 연결하였다. 지난해에는 무더위 속에서 작두콩이 4층 높이까지 올라와 건물 외벽을 초록색으로 가득 채웠다. 올해에는 작두콩 녹색커튼 외에도 병설유치원 앞에 수세미를 키워 터널형 녹색커튼을 조성하고 있다. 황창녕 교장은 “단순한 재배를 넘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육과정에 접목함으로써 전 학년에 걸쳐 ESD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며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은 수업과 연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법. 수완초는 교육가족의 ESD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배움중심수업 등 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최규식 교감은 “광주지역에 녹색커튼을 조성한 학교가 10곳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학교는 학년 별로 녹색커튼(작두콩)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라고 말한다.

콩콩 뛰는 작두콩 (최수아)

작두콩 새싹이 콩!
하늘을 보았네

새싹이 줄을 타고 쪽쪽 올라가네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 콩콩 뛰기도 하네

줄을 타고 올라가 작두콩이 콩! 하고
소리치면서 열매가 콩! 하고 나오네

열매가 커지고 또 커져서
바닥에 콩!
얼른 도망가 버려야지!

4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작두콩 커튼
56 텃밭의 작물을 관찰하고 있는 1학년들



녹색커튼과 수업이 만났을 때!

1학년은 씨앗의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기록하며 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경험 속에서 배운다. 2학년은 나뭇잎, 씨앗을 비롯해 가을 열매를 관찰하며, 3학년은 작두콩을 소재로 시를 짓기도 하고 캐릭터를 그리는 미술활동과 연계하고 있다. 4학년은 식물의 한 살이를 작두콩의 생애를 통해 관찰하며 식물도감을 만든다. 그 과정에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열매의 변화, 식물의 특징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녹색커튼과 실내 온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5학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식물의 구조와 기능, 친환경 생산에 대한 보람도 경험할 수 있다. 6학년은 실과수업을 통해 텃밭에서 작물재배의 전 과정을 경험한다.

이처럼 전 학년이 학년별 눈높이에 맞춰 작두콩의 한 살이를 경험하는 것이다. 녹색커튼(작두콩)이 교육과정과 만나면서 아이들의 감수성이 폭발한다.

생태교육이 나눔으로 이어지기까지

일명 ‘녹색커튼 프로젝트’의 완성은 작물의 수확과 그 수확의 기쁨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마음에 있다.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서 수확한 작두콩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았고, ‘기부’라는 좋은 일에 쓰자는데 뜻을 모았다. 당시 6학년생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 ESD박람회에서 재배한 작두콩을 차로 만들어 판매했으며, 로컬푸드와 공정무역 등을 포함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해서도 홍보하였다. ESD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작두콩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70여만 원 수준. 이후 학생회에서 3일간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해 백여만 원을 모금하였고 이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전액 기부하였다.

최규식 교감은 “녹색커튼, 상자텃밭 등 생태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한다. 이런 영향으로 수완초 학생들은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들을 이어가고 있다.

수완초는 녹색커튼 외에도 STEAM 선도학교, 다가치 그린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지구를 위한 행동 ‘줄이면 보여요!’라는 주제로 ESD-STEAM도 개최했다. 학부모회를 비롯해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5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아이들은 이 축제를 통해 1주에 1회 채식하기, 자전거 이용하기, 소중한 물, 친환경 에너지, 자원 재생 등을 배우고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다짐했다. 학교 생태동아리 ‘초록사랑부’에서 활동하는 5학년 6반 이에준, 김도훈 학생은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귀띔한다.

배움은 삶으로 이어질 때 더욱 빛난다. ②

송이호 파주 새얼학교 교사 장애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세상의 편견'

“장애인은 느낄 만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완주할 수 있어”

어릴 적 앓은 신체적 장애를 딛고,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 새얼학교 송이호 교사. 장애 학생들이 직접 인형극 공연에 참여하게 해 학교생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가 하면, 인권강사로도 활동하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녹음이 짙은 파주 새얼학교 교정에서 올해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에 선정된 그를 만났다.



1



1 송이호 교사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뛰어 넘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2 2019 대한민국 스승상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송 교사

2

경기도 파주 새얼학교(교장 이규식) 전공과 학생들은 매년 두 차례 인형극을 공연한다. 주로 새얼학교 교내 유치부·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지만, 때로 지역사회 보육원과 복지단체 등을 방문 무료공연도 전개한다. 이 인형극의 대본을 직접 쓰면서 학생들의 공연을 지도하고 있는 송이호 교사(48). 그는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선정한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의 주인공이다. 2000년 새얼학교에 부임한 송 교사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딛고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존감 고취 교육에 헌신해 온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생들이 인형극 공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장애인 수혜자의 입장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고요. 학생들이 정성껏 준비한 인형극 공연을 끝내고 나면, 그 성취감으로 인해 무척이나 행복해 합니다.”

송 교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형극 공연을 지속해 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새얼교회-끼'는 2002년 교사 중심의 인형극 동아리로 처음 출범했었다. 그러다가 6년 전부터는 전공과 학생 중심의 교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새얼

학교 전공과에는 농생명과(7명), 공예과(7명), 제품디자인과(7명)가 개설돼 있다. 고교를 졸업한 장애 학생들의 2년 교육과정으로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하는 전문대 과정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두려워 말자, 같은 인간이다'

“현재 인형극 활동에는 전공과 학생 21명 전원이 참석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를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죠. 인형극 공연에는 인형만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 동시에 출연하기도 해요. 바로 우리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맘껏 즐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연에는 그때그때 방송에서 유행하는 소재들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도 하는데, 교내 공연인 만큼 교육극의 형식만은 유지하고 있다. 송 교사가 담당하는 전공과 교과목인 '직업생활'과 인형극 수업이 이뤄지는 교실. 출입문에는 '두려워 말자, 같은 인간이다!'라는 전공과 급훈이 걸려 있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직업생활' 교과수업에서는 취업준비에 필요한 기본훈련, 면접체험, 이력서 작성법, 자기소개 방법, 대인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된다.

“학기 초 학생들과 상담을 해 보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애들아, 세상은 소꿉장난과도 같으니, 소꿉장난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재밌게 살자!”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에 노출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이 누적돼 있다 보니 학교생활에서 자신감도 부족했고, 친구들 눈치를 보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런 학생들도 인형극 수업 등을 통해 자존감을 찾아가고 있죠.”

장애가 없었다면 운동선수나 체육교사가 되었을 거라는 송 교사는 학생들에게 몸을 이용한 운동을 늘 강조한다. 등교 후, 전공과 학생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장애인 비장애인과 비교해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말하는 송 교사. “초·중등학교 시절에는 비장애인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술선수범하는 학생이었다.”면서 그는 웃었다. “비록 목발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때만 해도 날아다녔다.”면서 송 교사는 다시 한 번 유쾌하게 웃었다.

장애에 대한 편견 깨는 인권강사

이번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을 수상한 뒤 그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인 전남 완도군 금당면에 다녀왔다. 그곳 동네 어르신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릴 겸해서다. 이 말을 전하면서 송 교사는 스스로를 인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어린 시절,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고향 친구들에게도 늘 고마운 마음을 품고 산다. 어릴 적 고향 친구들은 지천명의 나이가 된 현재도 김포와 인천 등 송 교사와 지근거리에 살면서 자주 만남을 이어가는 중이다.

학창시절 헌신적으로 도와준 친구들 덕분에 장애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송 교사.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서울로 유학 와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다. 특수교육이라는 학문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눈뜨게 되더라.

현재 그의 명함에는 ‘새얼학교 교사’ 외에 ‘인권강사’라는 직함이 하나 더 표기돼 있다. 장애를 겪는 교사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이 바로 이 ‘장애 이해교육’이기 때



인형극의 대본을 직접 쓰며 장애학생들의 공연을 지도하는 송 교사

문이다. 그는 평소에도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장애이해’라는 표기를 더 선호한다.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 이해를 위한 강의 요청이 오면 주저 없이 달려갑니다. 무료강의여도 상관하지 않아요. 제가 바로 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이해하는데는 어느 누구보다 실제적인 산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장애인에게 3센티미터의 턱 높이는 30센티미터처럼 다가오고, 그로 인한 심적 부담은 3미터처럼 높게 느껴지곤 한다고요. 장애인들로서는 실제로 넘기 힘든 벽처럼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요.”

이처럼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따로 논할 수 없다는 게 송 교사의 설명이다. 또한 “장애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라면서 그는 “단지 기록이 늦어질 뿐,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마침내 100미터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송 교사와 새얼학교 아이들은 ‘아주 특별한 산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지난 5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산악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산행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것. 산행 전후 프로그램들은 송 교사가 주도하고, 등산 프로그램은 산악회에서 도맡아서 준비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함께 북한산도 오르고, 학교 인근의 사방산 둘레길도 걸으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학창시절의 좋은 추억거리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소꿉장난처럼 재밌게 살자!”

“이제까지 새얼학교 전공과를 졸업한 학생 수가 300명 남짓 됩니다. 현재 이들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재학생들과 평소 “졸업한 뒤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자”고



송 교사는 진로직업 공모전 최우수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그의 관심과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했던 약속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지켜나갈 생각이라는 송 교사. 한 가지 난관이 있다면 장애를 가진 졸업생들의 거주지역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새얼학교 학생들은 주로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을 주거지로 하고 있다. 때문에 졸업생들이 모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먼저 가까운 파주와 일산 지역만이라도 모임을 추진해 볼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전 졸업생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공과에서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취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해요. 우선 졸업생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말자’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늘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을 즐기고, 또 몸을 움직여야 비로소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송이호 교사. 그는 현재 대한체육회 소속 장애인야구소프트볼협회 휠체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일산 드래곤즈 야구팀의 유격수로도 뛰고 있다. 올해도 장애인 한일야구 친선경기에 다녀왔다는 그는 당당히 대회 MVP에 선정됐었다고 자랑했다.

“애들아, 세상은 소꿉장난과도 같으니, 소꿉장난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재밌게 살자!”

송 교사가 평소 전공과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살자”면서 자주 들려주는 말이기도 하단다. ②

교실 속 작은 숲 ‘마음풀’ “흙 만지고 씨앗 심고... 스마트폰 볼 새 없어요”



흔히 떠올리는 교실은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칠판을 향해 책상과 의자가 줄을 맞춰 있는 모습이다. 이런 교실이 초록빛 가득한 숲으로 꾸며지고, 학생들이 마주 보고 둘러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면 어떨까? 서울시가 빈 교실을 식물이 가득한 공간으로 뒤바꾸는 ‘마음풀’ 교실을 만들었다.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이 잠시 눈을 돌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학교에 조성한 것이다. ‘마음풀’ 교실 1호는 지난해 말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일중학교(교장 심지영)에 만들어졌다. 전일중의 교실 속 작은 숲을 직접 구경해보자.



서울 전일중학교 학생들과 시립대 멘토들이 자유학기제 수업시간에 만든 작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널찍한 공간에 초록빛이 가득하다. 중앙에 놓인 큰 탁자 속에는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고, 창틀 곳곳에는 화분이 자리를 잡고 있다. 뒤쪽으로는 바나나 나무, 겐차야자, 팔손이 등 다양한 식물들이 모여있어 마치 작은 식물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곳은 전일중학교의 비어있던 두 개 교실을 터서 만들어진 마음풀 교실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식물을 활용한 교실 디자인을 제안했다. 바로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 풀이 자라나는 공간,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마음풀’이다.

마음풀 교실에서 학생들은 직접 씨앗도 심고 화분에 물도 준다. 토마토, 옥수수 등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해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식물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삽, 물뿌리개 등의 도구가 비치돼 있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양손은 흙을 만지느라 바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새로운 식물들이니,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관심 밖이다.

서울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해결책은 ‘식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전국 청소년 129만 1,546명을 대

상으로 실시한 ‘2018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15.2%에 해당하는 19만 6,337명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항목이 모두 문제가 된 ‘중복위험군’ 청소년도 6만 4,924명에 이르렀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는 과도하게 시청각적으로만 반복적으로 자극해 청소년들의 뇌 발달을 제한하고 감각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서울시는 식물을 통해 학생들의 오감을 되살리고 잃었던 감성을 회복시켜 균형적인 뇌 발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마음풀 교실 곳곳에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표적인 곳이 교실 가장 뒤편의 ‘마음정원’으로, 그날의 기분과 감정을 자유롭게 낙서하며 표현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에 마음속에 담아둔 말들을 꺼내놓고 ‘셀카’도 찍으며 스트레스를 푼다.

마음풀 교실 시공에 참여한 ㈜마이너스플러스백의 고성현 대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삭막하고 네모난 교실과 가장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미적인 감각도 느낄 수 있으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꾸며 ‘학교 안에 이런 곳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시립대 학생들, '마음풀'서 자유학기제 수업 멘토로

이곳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자유학기제 수업이 열린다. 지난 6월 21일 방과후 시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이 마음풀 교실을 찾았다. 이들은 '마음풀 서포터즈'로 지난 4월 말부터 마음풀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의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시립대 조경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시는 씨는 "학생들이 식물과 친해질 수 있도록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먹는 소리만 듣고 무슨 식물인지 맞춰보거나 과자를 이용해 각자 자신의 텃밭을 모델링해보는 활동이 특히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다."라고 전했다.

이날은 지난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텃밭에 꾸밀 깃발과 집, 보물상자 등의 장식용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사인펜, 아크릴 물감 등 각자 원하는 재료를 선택해 작품 만들기에 돌입했다. "보물상자면 해적선 느낌이 나게 해골을 그려볼까?" "저는 '징징이' 집을 만들어볼래요!" 한 시간여의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은 만화 <포켓몬스터> 속 '에나비' 캐릭터를 직접 그려 색칠하고, 맛있게 던 바스켓은 물감을 묻힌 스펀지를 두드려 <스폰지밥>의 '징징이' 집으로 재탄생시켰다. 무서운 표정의 화분에 심은 옥수수과 가위가 그려진 깃발을 만든 전은유(1학년) 학생은 "식물을 파괴하지 말자는 의미"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각자 완성한 작품을 들고 학생들은 교실 밖으로 이동했다. 마음풀 교실 바로 앞뜰에 마련된 텃밭은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식물들을 심어 만든 공간이다. 저마다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텃밭에 직접 만든 깃발까지 꽂으니 열굴에 뿌듯함이 번진다. 일련의 과정에서 스마트폰은 이미 학생들의 관심 밖이었다. 김도경(1학년) 학생은 "마음풀 교실에서는 활동에 집중하게 돼서 확실히 스마트폰을 덜 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일반 교과 연계 수업·자율활동 공간으로 활용

마음풀 교실은 자유학기제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음악 등 교과목 수업, 학생 자율활동 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마음풀지기'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마음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생 동아리로, 다른 학생들에게 공간을 안내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학부모 동아리 모임도 이뤄진다. 학부모 동아리 부원들은 시민정원사들의 협조로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며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마음풀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풀 교실을 담당 운영하는 김은우 교사는 "마음풀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스마트폰과 멀어지고, 대신 교실 곳곳의 식물들을 관찰하며 호기심을 가진다."라며 "앞으로



- 1 전일종의 마음풀 교실 중앙에 놓인 큰 탁자에 학생들이 마주보고 앉아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고 있다.
- 2 텃밭을 꾸밀 장식용품을 만들고 있는 학생들
- 3 교실 뒤편은 마치 작은 식물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 4 벽면과 교실 전반에 설치된 선반엔 식물, 나무, 농사, 숲에 대한 도서가 비치돼 있다.

도 시립대 '마음풀 서포터즈'와 꾸준히 자유학기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학교 자체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단순히 식물을 가꾸는 것에서 나아가 일반 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수업을 더욱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전일중에 이어 올해 금천구 동일여고와 도봉구 정의여고에 마음풀 교실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다양한 정서적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시각 위주의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자연을 매개로 좀 더 고른 감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디자인을 적용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 마음풀 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헌법재판소 견학 프로그램

헌법재판소에서 보고 느끼는 역사의 현장



“헌법재판소를 떠올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대통령 탄핵 심판이요!” “대부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청구된 3만7,000여 건의 사건 중 탄핵 심판 사건은 단 2건이었어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6월 21일, 서울 연천중학교 2학년 학생 50명이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모였다.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운영하는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것. 오병옥 연천중 교사는 “사회 시간에 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배웠는데, 직접 와서 보고 느끼면 더 좋은 공부라 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견학에 앞서 헌법 내용이 담긴 소책자를 하나씩 나눠 받은 학생들은

익숙한 듯 낯선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나갔다.

견학 프로그램은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한 후, 담당 전문관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신호 전문관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에 어긋나는 다른 법을 재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매 순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지나치거나 부당하고 불필요한 법이 있다. 이런 악법을 없애는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라는 설명에 학생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은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섯다운제, 남성의 병역 의무 등 학생들에게 밀접한 법률을 예로 들어 이해를 도왔다.

헌법재판 이뤄지는 대심판정 둘러보기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역할을 익힌 학생들은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사진과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내용이 적힌 현판이 있는 입구를 지나 대심판정으로 향했다. 대심판정은 9명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최근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역사적인 곳이다.

김 전문관은 “헌법재판소는 법원보다 웬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더 가까운 곳”이라며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특정한 개인에게 해당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곳 대심판정에서는 여태껏 1,500여 건의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TV에서만 봐오던 곳에 직접 온 학생들은 신기한 듯 대심판정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인증 사진을 남기고 법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도 했다.

이혜영 학생은 “실제로 재판관들이 입는 법복을 직접 착용해보니 신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히 배우게 됐다.”라고 말했다. 송유정 학생은 “원래 법조계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직접 와서 법복도 입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기회가 된다면 변호사 직업 체험도 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헌법재판소 옛터에 살아 숨 쉬는 역사 알기

견학 프로그램은 헌법재판소 후원의 헌법수호자 상과 백송을 관람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헌법수호자 상은 오른손에는 저울이 새겨진 법전을, 왼손은 쇠사슬을 끊어내는 모습의 청동상이다. 김 전문관은 “헌법수호를 통해 국민의 자유, 평등, 행복 추구를 다짐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천연기념물 제8호로 지정된 백송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역사의 변화를 목격해온 산증인으로 남아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 터는 조선 말기 근대화를 주장한 박



규수 선생의 집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종합병원인 제증원이 자리하기도 한 곳이다. 학생들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공간을 저마다 자유롭게 돌아보며 관람했다.

오병옥 교사는 “이번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헌법의 의미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배운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장소에 직접 와본 것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

13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복 입어보기 체험도 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후원의 천연기념물 제8호 백송



헌법재판소 견학 프로그램

신청방법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에서 신청
 1회 관람 가능 인원 : 20~50명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및 일반인 / 외국인
 소요시간 : 80분 내외
 문의 : 헌법재판소 홍보담당관실 02-708-341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동 북촌로15 (재동83번지)

공희준 칠명바이오 대표

곤충사료에 빠진 고교생 창업가 “창업 도전, 시기보다 열정이 중요”



“고등학생이 무슨 창업이냐고 주변의 반대가 심했죠. 누가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고요. 그저 곤충이 좋고, 더 많은 곤충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곤충사료 제조기업 칠명바이오를 이끄는 공희준 대표는 전북 완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교복을 입은 옛된 얼굴의 소년은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인터뷰에 임했다. 친

진하게 웃음 짓는 모습에서나 제 나이가 보일 뿐, 유려한 말솜씨로 창업 과정을 이야기하는 그에게선 한 기업을 이끄는 청년 사업가의 면모가 엿보인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칠명바이오 생산 공장에서 공 대표를 만났다.

공 대표가 곤충사료를 연구하고 제조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다. 어렸을 때부터 도마뱀, 고슴도치, 햄스터, 거북이 등 다양한 생물을 길러온 그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같은 곤충 종류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곤충을 기르면서 사료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 국내에 곤충사료업체도 거의 없을뿐더러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공 대표는 독자적인 방식으로 사료를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잎새버섯을 재배한 후 버려지는 폐균상에 당배합 발효기술을 적용한 사료를 개발했다. 공 대표의 핵심 기술인 당배합 발효기술은 단당류 발효공법으로 곤충의 먹이인 미생물을 빠르게 증식하도록 하고, 참나무 톱밥을 주재료로 하는 잎새버섯 폐균상은 발효시간을 줄여 생산원가를 절감해준다. 이 아이디어로 그는 지난해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직접 개발한 곤충사료 제조기술로 히트

“사료를 처음 만들어보려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농촌진흥청에 찾아보니 탄질비를 맞추고 탄수화물, 단백질, 당류를 배합하면 된다는 설명 정도만 나와 있었죠. 기

1 직접 개발한 곤충사료 라바푸드를 들고 있는 공희준 칠명바이오 대표

23 공 대표의 생산공장에서 발효과정을 거쳐 탄생한 곤충사료 샘플

본적인 원리만 알고 적합한 원료와 첨가제를 찾아 무작정 실험에 돌입했어요.”

제대로 된 발효시설 없이 집안에서 실험하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공 대표는 사료 개발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됐다. 직접 만든 사료를 먹고 잘 자라게 된 곤충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그는 “실험을 거듭할수록 결과가 좋아 곤충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고 마니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며 “난생처음 느껴본 성취감이었다.”라고 회상했다.

곤충사료라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본 공 대표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마음먹었지만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다. 자본금도 없었을뿐더러 학업을 놓치면 안 되는 시기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부모님도 나서서 말렸지만, 그의 열정을 꺾진 못했다. ‘도전 K-스타트업’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나서야 인정을 받았다. 대회 상금 1억 원으로는 현재의 생산 공장을 마련했고, 사료 생산에 필요한 맞춤 장비들도 제작 중이다. 그간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는 이제 공 대표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됐다.

하지만 학업과 사업을 병행한다는 것은 여전히 공 대표에게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인터뷰 당일에도 그는 1교시 수업만 듣고 학교를 나왔다. “원래 성적이 상위권이었는데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집중하면서 확 뒤집혔다.”라며 씩씩한 미소를 보인 그는 “대학을 졸업했다거나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면 바로 바닥이다. 미래를 위해 대학 특별전형 입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단순한 사업 대신 가치 있는 일 하고파”

고교생으로서 그의 꿈은 물론 대학 입시에 성공하는 것이지만, 칠명바이오 대표로서의 꿈은 그보다 원대하다. 그



는 현재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공 대표는 “곤충사료 제조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달해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흔히 곤충을 미래식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직접 먹어보니 맛도 괜찮고 고단백 식품이어서 영양가도 높다.”라며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사회에 발을 내디딘 공 대표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번뜩이는 창업 아이템과 열정이 있다면 시기에 상관없이 도전해도 좋지만, 막연히 돈을 벌겠다는 마음으로 어린 나이에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모험”이라고 지적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그는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가 돼보는 것”을 조언한다.

“제품을 쓰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눈에 보이기 마련인데, 이 문제의 해결책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창업 아이디어의 시작이에요. 정말 애정을 갖고 사용해온 제품이라면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편함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바로 제가 창업을 시작한 이유죠.”

글_이주원 명예기자(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오브 쿠웨이트 조교수)

쿠웨이트 교육현장 : 광속으로 달리는 디지털과 달리는 빛을 관찰하는 아날로그 학생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하는 쿠웨이트는 지금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이곳의 아날로그적인 면모들을 통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

신속성이 중시되는 디지털시대에서 학습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열등함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을 발견한다. 사실 학습속도가 느린 학생들은 지식을 더욱 깊이 관찰하고 인식한다. 따라서 빠른 것 같아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학생보다 다소 느려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학생들이 더욱 창의적인 경우가 많다. 창의성에 있어서 몰입과 같은 예민하면서도 광범위한 사고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창의적 사고는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방향'에 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디자인 수업에서도 손으로 하는 스케치는 창의적인 창작에 큰 도움이 된다.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듯, 세계적인 광고대행사 랜도(Landor)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디자이너들이 컴퓨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시도하기에 컴퓨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존 듀이는 예술이란 열정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열정에 항방 없이 빠르게 행동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 과정에 방해만 될 뿐이다.

디지털시대, 중요한 것은 사고의 '방향'

필자는 지난 1년 동안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돕기 위해 1주일에 1시간씩 교수실이 아닌 교실에서 학생 면담을 진행했다. 그런데 정작 속도가 느린 학생뿐 아니라 오히려 속도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다. 또 속도가 느린 학생들이 일대일 수업처럼 할 수 있는 이 시간에는 쉽고 빠르게 과제를 수행했다. 따라서 속도가 느린 학생들의 문제는 단순히 속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업 시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잘 집중하지 못하는 등 다른 이유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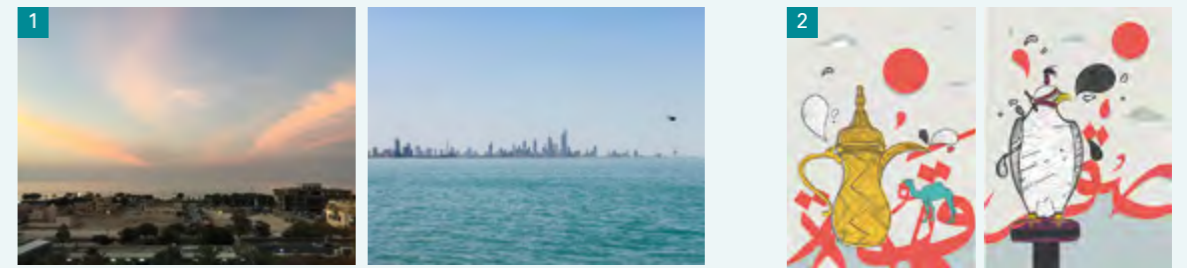
3년 전 AUK(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오브 쿠웨이트)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쿠웨이트와 한국의 문화 차이 때문에 필자에게 익숙한 한국이나 미국의 강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본질(essential)에 기초한 강의를 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 강의였다. PBL(Project/Problem Based Learning)과 같은 창의적 교육

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가 학습의 바탕이 된다. 창의적인 대화가 오가려면 기본적으로 서로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아라비안 문화권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키운 결과, 결국 200단위(한국의 2학년 과정과 유사한 개념) 수업 작품이 미국 어도비사에서 주관하는 ADAA (Adobe Design Achievement Awards) 공모전에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교육자-학생의 관계, 디지털교육 성패

현대는 기술 발전의 도움으로 잠재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이 아닌 개인이,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큰 성과를 이룬다. 산업혁명시대의 증기기관차와 철로의 역할을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피터 드러커가 『넥스트 소사이어티(NEXT SOCIETY)』에서 말했다. 인간의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성품 등 학문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인간의 생리나 심리 등을 잘 이해하는 것은 창의성 교육, 학생의 잠재력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미래학에서는 의사나 변호사도 미래사회에서는 지식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에 저장될 수 있으니 공감능력과 같은 사람과의 소통에 능한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한다.

창의성은 인간의 가장 중심적인 특성이기는 하나 동시에 다차원적인 조건들이 만족될 때 극대화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실제로 아날로그 측면이 많이 남아있는 쿠웨이트의 학생들은 교수를 신뢰할 만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학문적인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품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강의평가 질문 중에는 교수가 학생을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였는가(respect)를 묻는 항목이 있다. 교육자의 인간(학생)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적용될 때,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더욱 성공적일 것이다.



1 역사가 오랜 건축물(좌)과 고층 신축 건축물들(우)을 함께 볼 수 있는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쿠웨이트
2 어도비 ADAA 공모전 세미 파이널리스트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학생성명: 웨이카 알 오우펀). 글씨쓰기를 그림을 그리듯 하라고 배운 아랍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손 글씨를 잘 쓰고, 나아가 매일 사용하는 손 글씨기를 통해 숙달된 그리기는 뛰어난 수밖에 없다. 아랍 학생들이 미국 디즈니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온라인 프로젝트에 채용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글_ 김동수 명예기자

태안 근흥초, 아빠와 함께하는 숲 놀이터 조성



태안 근흥초등학교(교장 김낙인) 전교생 32명은 6월 22일 아빠,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뒤편에 있는 매봉산에 '지혜의 숲'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근흥초는 숲 놀이터 조성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자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근흥초 아버지회에서는 3월부터 숲 놀이터 조성을 위해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서 터를 닦고 주변을 정리했다. 미리 직사각형의 나무데크를 만들고 그 위에 아지트를 지었다. 잔가지와 결가지를 활용하여 데크 돌레에 작은 벽도 만들었다. 학생들도 그룹별로 나누어 아빠와 선생님을 도왔다. 어떤 그룹은 아빠들이 만들어놓은 아지트에 좀 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현판을 걸고 예쁜 색칠을 했다. 또 어떤 그룹은 '거미줄에 걸린 코끼리 놀이'를 위해 로프를 이용하여 거미줄 모양의 줄도 아빠와 함께 열기설기 뒀다.

글_ 이재찬 명예기자

'오감만족축제'에 서울지역 26개 청소년단체가 한자리에



지난 6월 15일 서울 시립 목동청소년수련관에 26개 청소년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 3회째 맞

이하는 오감만족축제는 청소년 활동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서울시민 및 청소년의 오감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가득했다.

글_ 강은아 명예기자

신성초등학교와 함께하는 글로벌 페스티벌



신성초등학교(교장 김진옥)는 학부모 및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 대학생 150여 명이 함

께하는 '글로벌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을 목적으로 매년 'FEEL KOREA GLOBAL FESTIVAL'로 열리고 있다. 농촌지역의 학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한국의 농촌 문화를 쉽게 접해볼 수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생생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한국인 대학생들이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한국과 글로벌 문화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연령과 국적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한 지역의 축제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_ 김민중 명예기자

함지고, 학교와 가정이 소통하는 행복편지



대구함지고등학교(교장 윤형배)는 공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개인의 강점을 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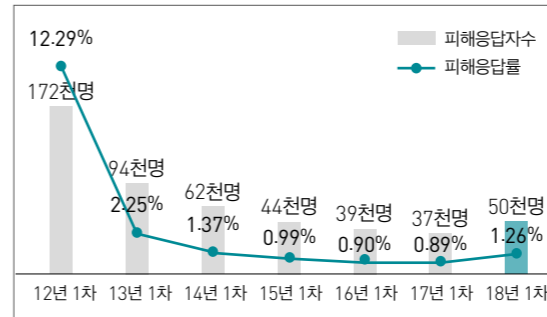
은 칭찬 편지인 '함지글월'을 매달 가정에 발송한다. 학창 시절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 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편지 발송은 올해로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작년 약 200여 명에게 전달된 편지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5월까지 벌써 100여 명에게 칭찬 편지가 발송되었다. 자신들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기록한 교장 선생님의 칭찬 편지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자존감을 높여준다.

글_ 장경아 명예기자

학교폭력에 대한 각국의 대응

지난 5월, 유명 밴드의 멤버가 과거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자진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에도 몇몇 연예인의 이름이 가해자로 거론되며 그들의 과거 학교폭력 행적이 온라인상에 거론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투'라는 신조어로 일컬어졌고, 해당 연예인을 연예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한때의 일탈로 여겨지기도 했던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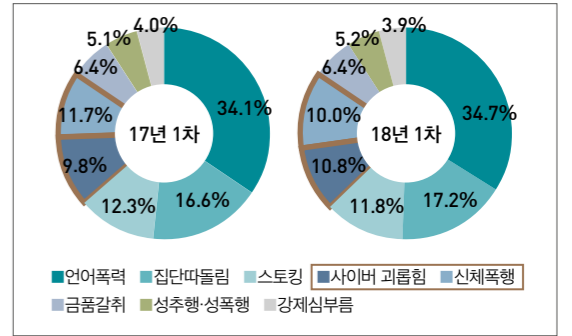
2018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6%(5만 명)로 나타났다. 매해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한 결과였다.



미, 학폭가해자 부모에 벌금 부과하는 제도 추진

국제적으로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위스콘신 등 미국의 일부 도시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 제도를 추진 중이며 뉴저지 주에서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부모의 훈육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청소년들이 1년에 20시간씩 키바 코울루(KiVa Koulu)라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학교폭력 방관자들이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로 활약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해외, 사이버폭력에 대한 강경 대응 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 또한 국제적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의 유형별 비율 중 사이버 괴롭힘 비율이 10.8%로 나타났는데, 중·고등학교의 사이버폭력의 비중(약 15%)이 초등학교(9.2%)에 비해 더욱 높았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사이버폭력 전담상담센터를 시급히 마련하였으며, 미국 또한 사이버폭력을 처벌할 기준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규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OECD 교육국장인 안드레아스 솔라이히는 이러한 문제를 개별 학교가 해결하도록 방지할 수 없다며 소셜 미디어에 대한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근 영국 정부는 온라인 기업이 사이버폭력 등과 관련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해내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였다.

학교폭력은 우리 교육계에서도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제이다. 올 초 정부는 엄정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대응절차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완벽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국은 학교 내 반폭력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여전히 골몰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_ 김지혜 명예기자

능실초, 달콤한 배움을 실천하는 '이야기 속 나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하여 능실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이야기 속 나들이'를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였다.

매 학기 한 권, 교과서 밖의 책을 수업시간에 끝까지 읽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이를 여러 가지 교육활동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1학기에 선정된 책은 서정오 작가의 『신룡방통도깨비』로서,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30여 차시의 교과 연계 활동으로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도깨비 탈 만들기, 수수께끼 놀이하기, 수원 화성 키트 조립을 통한 전통 가옥 체험하기, 등거리 만들기, 메밀묵 먹고 도깨비 씨름 잔치하기, 연극 소품 만들기, 역할극 연습하여 연극 발표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번 '이야기 속 나들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얇이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_ 엄월영 명예기자

인천도림초, 우리가 사는 마을 공간이 학습의 배움터!



인천도림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은 최근 우리 고장 도림동에 있는 이웃 어른들의 일을 직접 체험해보는 진로 탐색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 고장의 카페, 분식점,

글_ 박성호 명예기자

포산초, 수업놀이를 배움을 실현하다



대구포산초등학교(교장 김희자)는 전 학급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9일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학부모 150여 명을 초청, '2019 학생 참여 중심 수업 강화를 위한 수업성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포산초 학생들은 하나같이 학교에 놀러 간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수업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수업놀이는 놀이 속에 수업내용이 들어있어 배움의 기쁨과 수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힘을 키워가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의 능동적 수업 참여와 체험활동 중심의 수업이 바로 수업놀이인 것이다. 특히 '배워야 하는 강요'에서 '배우고 싶은 자율'로 학습자 배움 중심 수업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은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직사각형을 그리고, 만들고, 찾는 공부는 재미있고 더 쉽게 익힐 수 있어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꽃집, 빵집, 요양원, 유치원, 도예공방, 사진관, 방송 분장 아카데미, 홈패션, 중국음식점 등 다양한 곳의 샵터를 방문해 이웃 어른들의 일을 체험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체험할 곳을 나누고 팀별로 사전모임을 통해 체험활동을 준비했으며, 실제 활동까지 열정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마을공동체 의식을 키웠으면 한다.

글_ 홍순선 명예기자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행복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행복 콘서트'가 최근 아포초등학교(교장 황우원)에서 열렸다.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문화원장을 비롯하여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장학사, 관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아포초등학교 난타 공연을 비롯하여 시 낭송, 금관 6중주, 변검, 혼성성악중창, 오카리나, 마술, 힙합댄스, 다 함께 부르기가 진행되었다.

시 낭송을 시작으로 새로운 무대가 펼쳐질 때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창의 미술, 동요, 하모니카, 목공예, 토탈공예, 컬러 클레이, 오카리나/핸드벨, K-POP 댄스, 도예, 마술, 붐웨커난타를 8명의 전문 강사 및 시간강사가 학반별로 찾아가 지도하였다.

인기 좋았던 중국 변검 마술에서는 보는 마술이 아닌 직접 배우는 마술이라 시선을 집중시켰다. 미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가까이서 마술을 보니 더욱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이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금관 6중주에서는 단순히 보여주는 공연에 그치지 않고 악기 소리를 들려주며 금관악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아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문화예술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농촌학교에 찾아와 다양한 영역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할 기회가 되었다.

글_ 박수영 명예기자

육아, 품앗이하며 함께 키워요!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면 공동육아방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방은 말 그대로 함께 모여서 육아 품앗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공동육아방은 놀이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로 재능기부도 하고 육아 관련 정보도 나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 힘들지만,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도 함께 나누다보면 고민도 절반이 된다. 공동육아방에서는 함께 교구도 공유하고 아이와 놀아주기도 한다. 이곳은 만남의 장소로 서로 몰랐던 부모들이 만나면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소통이 시작되는 공간이다.

이들은 프로그램과 품앗이를 통해서 함께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희노애락을 공유한다. 서로간에 몰랐던 점도 알게 되고 아이 키우는 육아 노하우나 지역사회 정보를 나누기도 한다. 많은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며 소통하는 공동육아에 참여하길 바란다. ㉠



학교공간혁신사업과 미래학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사용자 참여설계 추진 교육공동체 함께 학교 건축의 품질을 높이자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 민주시민의 성장 열쇠

교육부는 금년 3월 27일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공간혁신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간혁신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의 ‘꿈을 담은 교실사업’이나 광주시 교육청의 ‘아지트 프로젝트’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던 공간재구조화사업을 모태로 하고 있다. 교육청마다 특색있게 진행되었던 공간재구조화사업은 교사와 학생들이 주도하여 학교 공간을 바꾸고 교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교 건축과 공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공간은 다양한 가치, 민주적 절차 중요

선행된 사업들처럼 학교공간혁신사업도 학생과 교사가 참여하는 설계방법을 적용하여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자 한다. 그동안 수혜자에 머물러 있던 학생과 교사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미래교육의 요구에 대응하며 학교 공간을 보다 즐겁고 살아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에도 학교공간혁신사업단이 마련되어 공간혁신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다. 교육청마다 유능한 총괄기획가를 임명하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모집하고 있으며 각 주체별(교사, 담당자, 학교, 퍼실리테이터, 건축사 등) 교육과 연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제

금년 사업대상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며 8월 이후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인 사용자 참여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공간(영역)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개축건물이, 내년에는 학교신축까지 공간혁신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공간혁신사업은 영역단위를 뛰어넘어 증개축, 신축 등 학교시설사업 전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가꾸어가는 학교시설사업의 새로운 장(場)을 펼쳐가고 있다.

참여 설계와 공간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다

우리의 초·중등학교시설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학습 환경에 대한 높아진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교실과 복도로 이뤄진 천편일률적 공간으로는 학생들의 정서적·심미적 요구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교육계 내·외부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학교시설과 공간은 변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나 전문가에 의한 일방적인 방식으로는 결코 바뀔 수 없다. 물론 많은 학교를 지어야 했던 지난 개발시대에는 재정 경제성, 시설사업의 효율성을 이유로 사각형 건물이나 일자형 복도 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신축보다는 개축사업이, 경제성보다는 다양한 가치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민주적 절차가 더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공간혁신사업은 학교 공간에 대하여 학생, 교사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미래교육의 발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되새김하면서 교육

공간혁신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설계와 공간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심에 학생이 있다는 데 있다.

공동체가 함께 신중하게 학교를 만들어가면서 학교 건축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혁신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 설계와 공간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심에 학생이 있다는 데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참여 설계에서 학생들은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과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도 하고, 스스로 학교 공간을 자기화(selfhood)하여 가꾸고 꾸미며, 더 나아가 스스로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체득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며, 공간과 땅을 함께 가꾸고 나누어 사용할 줄 아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과정 속의 공간교육은 학생들에게 공간감, 예술성, 문제해결능력, 과학과 예술의 융합적 사고 능력 배양 등 많은 교육적 효과가 있다.

미래교육 발전에 대응, 학교 건축의 품질 높이자

OECD의 미래학교 시나리오(2001년)는 향후 학교의 모습을 네트워크형 및 탈학교형(de-schooling)으로 묘사하고 있다. 비록 미래학교가 탈학교형으로 발전하더라도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공간으로서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학교는 단순히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소통, 상호정보 교류와 체육, 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ICT의 발전은 학교 공간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전자칠판, 태블릿 PC를 넘어 로봇,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이 실현되는 인프라를 갖추

고, 가변적 공간, 터치스크린, 인터랙티브 월(interactive wall) 등으로 구성된 가까운 미래의 교실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습도 강의 위주에서 토론과 프로젝트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과 같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 공간은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변화에 순응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다양화될 것이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끼리끼리 공간, 융합교과 공간, 실 이름이 없는(no-brand) 공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1+1 공간 등 새로운 공간들도 출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은 위에서 나열한 미래학교의 모습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선도하고자 한다.

교육공동체 어우러지는 장소로 탈바꿈

이처럼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미래교육 요구에 부응하며, 교육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장소로 바꾸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를 감독과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의 공간으로, 학습 공간 위주의 목적적 공간을 휴식, 놀이 등 일상의 삶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학교를 만들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학교를 꿈꾸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 ICT를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학교들이 공간혁신사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미래학교의 모습이다. 끝으로 학교공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추진될 수 없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교,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 설계자, 촉진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학생 개개인에 투자 늘려 미래성장 동력으로”



청와대·교육부·기재부·시·도교육감 참석
지방교육재정 효과적 운영방안 고민
교육부·시·도교육청 “高무상교육 안정적 추진 노력”

교육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6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합의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협의체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 분야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73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 유·초·중등교육 정책 수행을 위해 사용된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기준 55조 2,000억 원으로 교육부 총지출의 약 74%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회의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를 기록하는 등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 운영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투자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소중함이 높아지는 만큼 투자를 확대하면 오히려 교육이 양질화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투자가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로 이어져 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라며 자금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학령인구 감소, 투자 늘려 교육 양질화 기회로”

지방교육재정 논의와 관련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구 차관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무한경쟁이 필요한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이한 상황을 언급하며 혁신과 포용 성장을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재정 운용 상황과 교육투자 현황을 짚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학생 맞춤형 교육시스템, 학교와 지역사회 간 유기적 연결, 교원양성체제 개편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각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학교 공간 재구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시했다.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시행령 정비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교육 유관기관 참여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이 3학년 2학기 소요 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가 구성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②



“고교 무상교육이 궁금해요” 올 하반기 시행...고3 49만 명 혜택 1인당 연 160만 원 절감 기대



패널 유희진 교육부 (전)교육복지정책과/국립대학정책과 서기관
정미영 경기 운천중학교 학부모
사회 : 이순이 편집장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교육부 회의실
정리 양지선 기자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된다.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역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으로 1인당 연평균 1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첫 도입을 앞두고 고교 무상교육의 의미와 취지, 그리고 도입을 통해 이뤄질 변화에 대해 학부모 대표와 정책담당자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순이 — 유희진 — 정미영



고교 무상교육 도입 취지와 의미

사회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된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이 많이 반기고 있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유희진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실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국정과제로 2017년까지 완성하고자 했지만,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다 보니 예산 문제로 인해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고,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대다수 시·도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죠. 또한, 2017년 12월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6%였어요. 이처럼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교진학률은 99.7%로 고교교육이 보편적인 만큼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까지는 교육비가 지원되고,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유독 고등학생들만 유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됐을까요?

유희진 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고, 의무

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비도 무상이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이 확대되어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안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수업료는 유상인데 반해,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급식비, 교복비 등에 대한 무상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운영의 핵심인 수업료가 유상인데 나머지 항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죠.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반대로 대기업에 다니는 학부모의 경우 직장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사이에 낀 중간층, 즉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옷이 학비를 내야 하는 구조예요. 어떤 측면으로 보아도 고교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영 저는 현재 중2 자녀를 둔 학부모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시행된다니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다른 나라의 사례도 궁금합니다.

유희진 네, 실제로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고교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도 미국, 영국, 독일 등 11개 국가에 이르러요. 대부분의 국가는 공교육이 국가 교육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고등학교까지의 보통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에서만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죠.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계획 및 예산

사회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학년별 실시계획과 지원 범위 등 전반적인 계획을 알려주시죠.

유희진 오는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2·3학년, 20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이 완성됩니다. 지원 항목은 학교 교육과정의 필수 경비라 할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4개 항목이에요 수업료는 시·도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연평균 1인당 160만 원이어서 3개년을 합하면 총 480만 원에 달합니다. 당장 올해는 고3 학생 약 49만 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대상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였는데요, 보다 많은 학생에게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 고3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표1, 표2 참조>

정미영 고등학교도 유형이 특목고, 자사고, 마이스터고 등 다양한데 모든 학교에 무상교육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유희진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인데요. 그중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됩니다. 그런 학교 유형 안에는 자사고나 일부 사립 특목고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이 기준은 고교 무상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사립의 경우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이 고등학교에도 적용되는 것이예요. 사립 고등학교라고 무조건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해당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의 자율성 여부입니다.

사회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막대한 예산이겠죠.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 장치가 필요한데, 교육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희진 그간 국회, 재정당국,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를 지속한 결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9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2학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체 예산으로 상반기 추경을 편성해 문제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2020~2024년까지 5년간 일반지자체 부담분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2025년 이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교육재정 수요와 학생 수 변동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연구결과와 협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가져올 변화

정미영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비가 절감되니 좋는데, 혹시 반대로 유·초·중학교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도 됩니다.

유희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이 유·초·중학교의 기존 정책 제도나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정책담당자로서 고교 무상교육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희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아닌, 이제야 비로소 시행되는 것이죠. '무상'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 때문에 '다 퍼주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데, 정책담당자로서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가장 중요한 4개 항목에 한정된 것인데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 수준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업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예요. '무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보다 제도의 본질에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고교 학비 미납 학생이 약 1만 5,000명이었고, 금액은 6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에 놀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현재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교육비가 지원되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교 무상교육은 조기 시행이 아니라 오히려 늦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유·초·중·고로 이어지는 보편복지가 실현되고, 나아가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국가의 공교육 책임론이 강화되고 있는데 정책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정책담당자로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희진 고등학교 진학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가정환경이나 계층, 소득에 상관없이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학생 가구가 얼마나 가난한지 각종 신청과 증명서 제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증명해야 하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교육청이 국민의 마음을 담아 큰 예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원 확보 방안을 만들어 냈고, 이제 고교 무상교육 지원 관련 법안 개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이 개정되어,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②

고교 무상교육 도표로 한눈에 보기

[표1] 고교 무상교육 단계별 계획 및 추정 필요 예산

시기	적용대상 (당해 연도 기준)	지원 항목	재원 마련 방안	추정 필요 예산
2019년 2학기	고3학년	입학금, 수업료	각 시·도교육청 추정 예산	3,856억 원
2020년	고2~3학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정부 증액교부금 47.5%	1조 3,882억 원
2021~2024	전학년	(단,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교 제외)	각 시·도교육청 47.5% 지자체 5%	1조 9,951억 원 (2021년)
2025년 이후	전학년		추후 논의	추정치 없음

자료 : 교육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표2] 고교 무상교육 적용 대상 비교

	2019년 2학기	
	1학년부터 시행 시	3학년부터 시행 시
현재 고3(2001년생)	X 혜택없음	○ 49만 명
현재 고2(2002년생)	X 혜택없음	○ 44만 명
현재 고1(2003년생)	○ 44만 명	○ 44만 명
현재 중3(2004년생) 2021년 고2	○ 43만 명	○ 43만 명
현재 중2(2005년생) 2021년 고1	○ 39만 명	○ 39만 명
	총 126만 명 혜택	총 219만 명 혜택

자료 : 교육부

※ 본 기사는 유희진 서기관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고교 무상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시점에서 작성된 것임.

고졸 성공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고졸 취업 활성화 위한 ‘직업교육 체계’ 구축 운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전국 586개 직업계고 지원
양질 교육 통해 ‘학생→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2 2019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현장

2019년 1월,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등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진출을 지원하며, 취업 이후에는 사회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고졸 성공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고졸 성공 사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생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기술을 토대로 사회로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대학 진학 일변도의 진로가 아닌 새로운 성공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적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청년일자리 mismatch 해소의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이와 같은 ‘고졸 성공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며, 나아가 사회로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전국 직업계고 28만 명 지원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내실 있게 제공하고 졸업 이후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전국의 586개 직업계고등학교, 약 28만 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

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도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고 있다.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력적인 직업계고등학교를 만들어간다.

먼저 미래유망 분야의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개편을 지원한다. 스마트팩토리,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촉발된 신산업 분야나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등으로 매년 100개 학과 이상의 개편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해 나가고 있다. 올해 112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을 운영하여 직업계고등학교가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혁신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간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기업현장에서 수행하

는 업무가 다르지 않도록, 2018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아는 교육’에서 나아가 전체적인 업무수행의 흐름 속에서 실제 ‘할 줄 아는 교육’을 추구한다. 이와 더불어 NCS 기반 교재인 NCS학습모듈을 만들어 보급하고, 직업계고등학교 선생님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실제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 직업교육 모델을 만들어간다.

2008년 처음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현재 51개교가 지정되었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여 보다 산업 수요와 밀접한 교육을 제공하며,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여 우수기업에 진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을 받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 나가는 3일 동안은 필요한 이론과 지식, 기술을 배우고 산업체에서 교육받는 2일 동안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해보고 현장의 전문가로부터 기술을 전수 받는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196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는 이와 같은 '고졸 성공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직업교육의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며, 나아가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타 부처와의 협력 모델도 구축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과 스마트팩토리 거점학교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래농업선도 고등학교 지원 사업, 국방부의 군 인력 양성사업과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 등 2019년 현재 10개 부처·청과 협력하여 300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안전하고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을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실습은 학교와 선생님의 관심 속에서 학생들이 직업세계를 미리 경험하고 현장의 기술과 직무를 익힐 수 있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실습 기업을 발굴하고, 학교별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여 상시적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내에서의 학생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구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국가에서 실습을 실시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글로벌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섯째, 고졸 취업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 구축,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학교 취업지원관 배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직업계고등학교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취업처를 발굴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학생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에게 1인당 3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업을 하여 국가직 및 지방직 9급 고졸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 공공기관 고졸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취업 이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3년 근속 시 최대 3천만 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여 기업 내 고졸자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취업 후에도 언제든지 필요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교육부 내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재직자특별전형을 운영하고 후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대학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재직자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학교·교육청·경제단체·부처 등과 협력·참여 이끈다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직원 모두가 꿈꾸는 사회는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우수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후학습을 통해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사회이다.

이는 누구 한명의 노력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교, 교육청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한 발자국씩 전진하다보면 '고졸 성공 사회'는 어느새 부쩍 가까이 와있을 것이다. ㉠

중앙교육연수원의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01 다양성과 공존의 이해, 교실에서 자라나는 세계시민

세계시민으로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그 출발은 교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알 듯 모를 듯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부터 통일시대의 대한민국까지,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를 만나보세요.

02 제2의 전성기, 당당한 나를 위한 퇴직 후 인생설계

퇴직 후 제2의 인생 준비는 되셨나요? 다양한 관점에서 인생을 재조명해 보고 인생 2막을 함께 설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은퇴 후 재취업, 연금관리, 건강관리 등 체계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보세요.

03 낯설지만 궁금한 대안학교 이야기

대안학교에서는 어떤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다양한 대안학교를 탐방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어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의 사례도 만나보세요.

04 스토리와 함께하는 야생화 산책

대하소설 「혼불」에 나오는 '여뀌'는 어떤 꽃일까요? 17년에 걸쳐 완성한 소설의 중심에 작은 야생화가 자리하고 있어요. 문학과 역사 속에서 야생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05 생활 속에서 배우는 편편한 과학기술

날씨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매운 것을 먹으면 왜 땀이 나는 걸까? 딱딱한 과학 지식은 가래! 일상의 호기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현상을 알아볼까요? ㉠

대학 강사의 고용안정과 고등교육의 질 개선

4차례 8년간 유예 거쳐 오는 8월 강사법 시행 강사 1년 이상 임용,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시간강사 연구지원비 및 방학 중 임금 등 지원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전환하며, 시간강사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드디어 2019.8.1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제4조의8)와 교수시간(제6조),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자격 요건(제7조) 등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어 역시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8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온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장 안착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강사법의 배경과 그동안 경과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것은 2004년 평등권 침해와 더불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시간강사 문제를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권고한 데서 시작한다(교육부, 2019). 특히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부당 대우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사회통합위원회는 10.10.25에 강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명칭을 강사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사법을 마련하였고, 이는 11.12.30 국회를 통과하여 13.1.1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2.12.11.과 2014.1.1에 1차례 유예되었고, 강사의 신분 안정을 목적으로 개정된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는 2015년 12월 31일 2년간 유예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 유예안은 교육부가 2016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16.2~9)를 구성·운영하고, 16.10.19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강사법)’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 예고안은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교육부, 16.10.19). 그러나 보완 강사법 역시 한 차례 더 유예되면서 다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18.3~8)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으로 재차 보완된 강사법이 18.12.18 공포되어 19.8.1 시행을 앞두고 된 것이다.

강사법 핵심,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

강사법의 핵심은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에 강사를 추가한 것과, 제14조의2를 추가하여 강사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 그리고 강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17조에서 겸·초빙 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에 대한 포괄적 규

정을 한 것이다.

강사법상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제14조의2 제1항). 강사는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제3항).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며(제4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제5항).

특히 강사 수를 줄이기 위해 겸임교원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겸임교원은 ①법 제16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③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도록 하였다(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

[표1]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연도별 교원 및 시간강사 수 추이

연도	전임교원			겸·초빙교원			기타비전임			시간강사			합계		
	인원	(%)	증감	인원	(%)	증감	인원	(%)	증감	인원	(%)	증감	인원	(%)	증감
2012	84,900	(35.3)	2,710	26,051	(10.8)	△327	19,855	(8.3)	2,394	109,743	(45.6)	△2,344	240,549	(100.0)	2,433
2013	86,656	(36.6)	1,756	27,925	(11.8)	1,874	21,576	(9.1)	1,721	100,639	(42.5)	△9,104	236,796	(100.0)	△3,753
2014	88,163	(38.4)	1,507	27,428	(12.0)	△497	22,413	(9.8)	837	91,377	(39.8)	△9,262	229,381	(100.0)	△7,415
2015	90,215	(39.3)	2,052	25,474	(11.1)	△1,954	24,705	(10.8)	2,292	89,242	(38.9)	△2,135	229,636	(100.0)	255
2016	90,371	(40.3)	156	26,383	(11.8)	909	28,185	(12.6)	3,480	79,268	(35.4)	△9,974	224,207	(100.0)	△5,429
2017	90,902	(40.6)	531	26,275	(11.7)	△108	30,459	(13.6)	2,274	76,164	(34.0)	△3,104	223,800	(100.0)	△407

주. △은 감소를 의미함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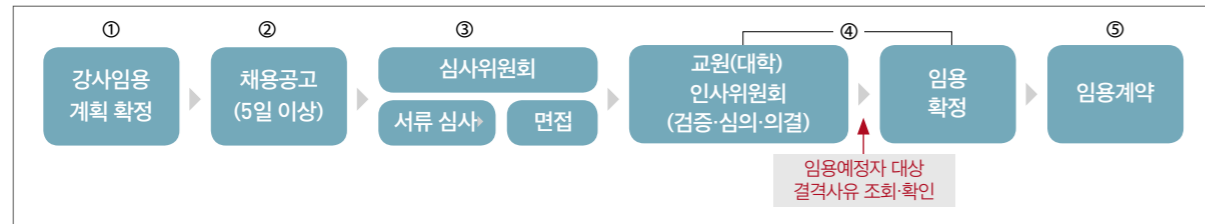
강사법의 부작용과 강사의 추이 변화

대학은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대학재정이 점점 심각하게 부족해지면서 대학들은 대학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에 대한 4대 보험과 퇴직금, 방학 중 임금 지급이라는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되면서 대학들이 강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2011년 최초의 법 개정 이후 강사법이 네 차례에 걸쳐 유예되면서, 대학들은 강사를 줄이는 대신 비정년 트랙 전임 교원이나 겸·초빙교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사법에 대한 대비를 해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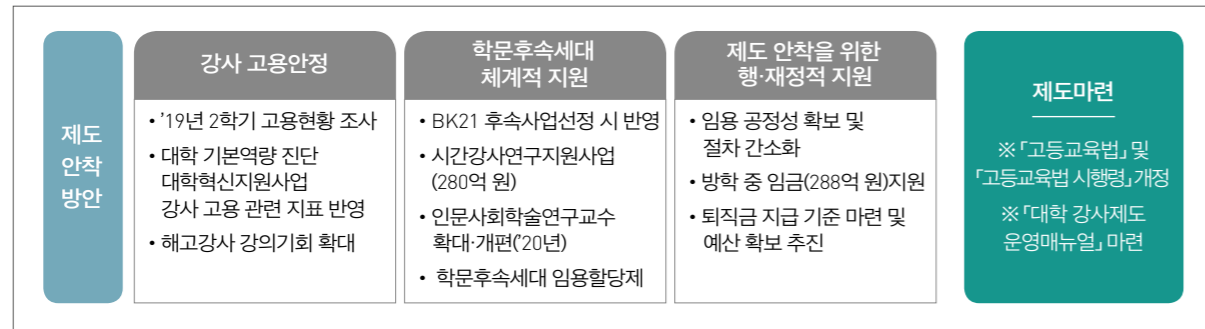
실제로 강사법이 첫 개정된 2011년 이후 전체 고등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임 교원은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시간강사는 전년대비 2013년에 3.1%(9,104명), 2014년에 2.7%(9,302명)가 감소하였다. 전임강사는 2008년 46,797명에서 2017년 39,318명으로, 비전임강사는 2008년 48,991명에서 2017년 36,846명으로 감소하였다. 비율로 보면, 전임강사는 2008년 48.9%에서 2017년 51.6%로 증가한 반면, 비전임강사는 2008년 51.1%에서 48.4%로 감소하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이처럼 강사법은 대학의 재정 압박을 가져오고, 강사 수의

[그림1] 강사 신규 임용 절차



[그림2]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여론이 높았다. 2015.11.20 교수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사법에 대해 전임/비전임 교원 전체 응답자의 73.5%, 시간강사들은 93.9%가 반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당초의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강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문후속세대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이제 강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대학은 약자의 보호라는 강사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된다. 강사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관련 이해 당사자인 대학과 강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첫째, 강사규모의 변화는 결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어떻게 산정하고 이를 정

부 재정지원 평가지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은 대학들에게 매우 민감하며 중요하다.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비전임 교원이 주당 9시간을 담당하면 교원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겸·초빙교원이 증가하였다. 이제 강사도 법적으로 교원의 신분을 부여받은 만큼,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어떻게 포함하여 산출할 것인가 하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종 대학 평가에 전임 교원 확보율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전임 교원 확보는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전임 교원 강의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전임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포함하게 되면서 시간강사의 강의담당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제 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은 만큼,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와 강사운용지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

강사 고용안정·학문후속세대 지원·행정적 지원

지난 6월 4일 강사법 개정에 따른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교육부는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9.6.4).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시하였다.

먼저 강사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여 학생 학습권 확보와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 원)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 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19년 10월 예정)한다. 관련 지표 반영 시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할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9년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 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 원)을 편성하여, 경력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는 강사 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 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다만,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 교원에 비해 간소화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채용 절차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새로이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288억 원)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퇴직금 예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강사 역량강화, 연구지원(국립대 육성사업) 및 강사 근무환경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다.

1)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 계획성 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은 웹진에서 확인하세요.

셋째, 전업강사만을 위한 관련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간강사는 ①다른 대학의 전임 교원이 강의하는 경우, ②전문직 종사자(변호사 등)가 강의하는 경우, ③퇴직자가 강의하는 경우, ④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 종사자가 강의하는 경우, ⑤대학원 수료 혹은 졸업 후 시간강의료에만 의존하는 전업 시간강사의 5개 유형으로 분류된다(심경호 외, 2002). 엄격한 의미의 강사는 마지막 5유형의 전업강사이다.

특히 이들 중 연령 초과자와 학문후속세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문후속세대 전업강사의 경우 일정시간 강의를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학문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재단의 연구활동 사업에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과 차별화된, 학문후속세대 (가칭)연구전업강사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임용된 강사는 연금, 의료보험, 교직원공제회 등에 있어서 전임 교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강사에게도 정부지원 연구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부지원 연구 사업의 경우 강사 및 비전임 교원의 경우 공동연구자로는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로는 신청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이제 강사도 교원의 신분을 부여 받은 만큼, 자격을 갖춘 강사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의 연구책임을 맡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 집행은 소속 대학에서 하도록 하면 된다.

다섯째,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기존대로 시간제 시간강사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강사의 53%는 박사학위 미소지자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8). 이들 중 상당수는 박사과정 재학 혹은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 그러나 강사법 개정 이후 적지 않은 대학들이 박사학위를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학문후속세대는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문후속세대의 교수 활동 경험을 위해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은

기존의 시간제 시간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기별 최대 강의시간 수, 출강 가능 대학 수 등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학문후속세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김병주 외, 2017).

여섯째, 강사의 책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 강사의 신분 안정, 교육 및 연구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책무성 역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하여 강의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지원을 위한 평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 소요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명확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사의 처우 개선과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없이는 강사 수 축소라는 강사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추가 재정지원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학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강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추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강사법 취지 살리기 위한 정부-대학 간 협력 필요

아울러 강사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이후 대학들의 강사 수 감축 노력은 강사법으로 인한 추가재정 소요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 강사법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사법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대학의 협력이다. 이제 강사는 법적인 절차에 의한 채용과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임용되고 질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단순히 강사의 신분과 생활 보장 차원을 넘어, 학문후속세대로서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대학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내가 선택한 과목으로 행복한 날, '해피교과데이'!



양산 신주중학교(교장 김미영)가 통상적인 교과 활동에서 벗어나 하루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교과, 관심 활동만 선택하여 참여하는 '해피교과데이'를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양산 신주중학교(교장 김미영)가 통상적인 교과 활동에서 벗어나 하루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교과, 관심 활동만 선택하여 참여하는 '해피교과데이'를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동을 선택해 오전 시간 동안 참여했다. 세부종목은 국어(독서골든벨, 북아트 만들기), 수학(트래버스, 루미큐브), 영어(영어로 소개하는 글쓰기, Spelling Bee), 사회(다문화 소개하기, 자연재해 신문 만들기), 미술(학교 풍경 드로잉, 창작 캐릭터 디자인), 체육(서틀런, 줄넘기 1단 오래 뛰기) 등이며, 이밖에 '나도야 초보 셰프, 나도야 아티스트' 등 전 교과에 걸쳐 흥미로운 활동이 개설되었다. 오후 시간에 1학년은 친구와의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친구의 얼굴을 먹거리로 표현하는 '우정 블레스 유' 활동을, 2학년은 친구와 함께하는 전통놀이 활동을, 3학년은 상급 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신의 적성 발견을 위한 진로 탐색 활동을 이어갔다.

'해피교과데이'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교과 활동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2014년 처음 실시한 이래 올해 6회째 열리고 있는 차별화된 교육 활동이다. 각 학년별로 개설된 20여 가지가 넘는 교과 활동 중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



첨단고 '혁신 3교실', 학생들의 삶을 바꾸다



광주 첨단고등학교(교장 류시춘)가 학교 공간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첨단고의 '혁신 3교실'이라 불리는 '라운', '샹터', '아키놀이터'가 바로 그곳이다. '라운'에서는 공연이 열리고 다양한 영상이 상영되며 학생들이 모여 춤을 추기도 한다. 주말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학교 간 협력과장'을 연다. 주제는 물리실험과 공중보건이다. 대안교실 '샹터'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토의를 하고 공유 부엌이라고도 불리는 '아키놀이터'에선 제작활동과 진로체험 등이 진행된다. '라운'은 주로 잠겨있고 먼지 쌓인 체력단련실이었고, '샹터'는 창고였다. '아키놀이터'는 낡은 가사실이었다. 전부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학교 공간 변화를 디자인하고 기획했다. 학교 구성원들과 민주적인 의사소통도 거쳤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이 교실들에 더 애정을 가지고 있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실이면서 학생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혁신 교실 3곳은 학생 동아리 '공구함'이 관리하고 있다. '공구함' 학생들은 평소 점심시간에 재학생들이 신청한 뮤직비디오를 틀어주거나,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실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공간혁신 교실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소담중, 맨발로 세상을 만나다



소담중학교(교장 홍순국)는 2019년 건강증진학교로 선정, 전교생과 교직원이 맨발 걷기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만군 학생은 25%로 전년도 23.9%보다 늘어났으며, 주 3일 이상 운동한다는 중학생 비율도 35%에 그쳐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인터넷 중독이나 정서행동문제를 보이는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이에 소담중은 청소년기 건강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소담중에서는 교과시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점심시간에 맨발 걷기 활동을 실시한다. 이 활동은 학생과 교직원의 기초 체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 문화의 확산을 위해 교내 맨발 걷기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10월 중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는 계족산 황톳길 맨발걷기 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순국 소담중 교장은 “성공적 교육 활동의 기본적 바탕은 건강”이라며, “맨발 걷기 활동으로 올바른 자세와 균형감각 같은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교우관계 회복과 같은 정신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전인적인 요소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원 관사 현대화 위해 157억 투입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교직원의 농어촌 지역 근무 기피현상과 벽지학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총 157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교직원 관사 현대화 중기 개선계획’은 관사 운영 및 활용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 임차, 개축, 비품 지원, 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교직원의 가족 형태를 고려한 원룸형·가족형 공동관사를 지원해 정주여건을 개

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744세대의 교직원 관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관사는 80세대, 20년 이상 30년 이하 관사는 288세대로 30년 이상 노후 관사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관사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활용 관사에 대해 사용 희망자가 없거나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건물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하는 등 미활용 관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교직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야간민원서비스 ‘수요달빛 민원실’ 운영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 ‘수요달빛 민원실’을 운영한다. 수요달빛 민원실은 교육 관련 민원을 보기 위해 일과시간 내에 별도의 시간을 내야하는 맞

벌이, 직장인 등 바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교육청 민원실에서 시행하는 야간민원 서비스이다. 이용 가능한 민원은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등 즉시 발급이 가능한 제증명 민원은 물론, 진정·건의·질의 민원도 접수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전광판, 대전교육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

“욕 No! 고운 말 Yes!” 향도중의 언어순화 캠페인



향도중학교(교장 변희승)가 “욕 No! 고운 말 Yes!” 라는 주제로 언어순화 캠페인을 펼쳤다.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과 교실에 삼삼오오 모여 언어순화 인증샷을 찍으며 욕설 줄이기 실천 운동에 참여했다. 향도중은 2019년을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특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율동아리 ‘고운 말 누리단’ 결성, 등교 맞이 캠페인 실시, ‘언어순화 급훈 만들기’, ‘욕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욕 타임캡슐’ 등을 운영한다. 언어순화 캠페인 당일에는 고운 말 누리단 동아리 학생들의

주도로 언어순화를 다짐하는 인증샷을 찍고, 참가 학생에게는 ‘나는 고운 말을 쓰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라는 로고가 새겨진 물병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물병을 받아 들고 “나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욕 No! 고운 말 Yes!”를 외치며 언어순화 의지를 다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욕을 안 하겠다는 다짐을 인증샷으로 남기니 더욱 책임감이 느껴진다”, “물을 마실 때마다 고운 말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라며 이번 캠페인이 언어문화 개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변희승 교장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증샷으로 서약을 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물병 이벤트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욕설을 줄이고 바른말을 쓰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향도중은 매달 고운 말을 사용하는 학생을 시상하고, 10월에는 KBS 우리말 선생님 초청 강의를 준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㉞

Z세대를 위한 교육

Z세대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로,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자라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텍스트보다 이미지, 영상을 선호하며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뿐 아니라 생산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Z세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해 논의해본다.

“너의 생일을 축하해도 될까?” 얼마 전에 한 매거진에서 읽은 어느 대학생의 칼럼 제목이다. 모바일 메시지의 생일 알림 서비스를 보면서 생일축하 메시지나 기프트콘을 보내고 싶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주저해 보내기 어렵다는 요지의 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Z세대보다 앞선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의 부모 세대들에게는 생일을 알고 있을 정도면 응당 친한 친구이니 축하는 물론이고 오히려 한턱내라고 했을 것이다. 생일 알림 서비스로 생일을 알게 되는 사람은 늘었지만, 정작 생일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다. Z세대들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Z세대=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디지털 네이티브를 들 수 있다. 미국에 이민을 간 1세대들이 영어를 고민하며 생각해 사용하는 원주민 세대라면,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는 영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네이티브이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사용이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세대이다. 이들은 멀티태스킹을 위해 다섯 개 이상의 스크린 사용을 선호하고, 주의시간이 평균 8초 정도로 짧으며,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소통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영상으로 보는 게 익숙한 세대이다 보니 간단하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을 즐겨한다.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를 ‘아아’로 주문하고, 맛있다를 ‘JMT’로 표현하는 세대이다.

Z세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자기애가 큰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의 높은 자기애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어느 세대보다도 20대의 취업률이 가장 낮고, 취업경험 중 정규직의 비율도 고작 7%에 불과하다고 한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고 하나 정규직 자체를 찾기 힘든 일자리 환경에 있다 보니, 순간순간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동안 유행했던 자기계발서가 이들에게 더는 팔리지 않는 이유이다.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을 일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조언보다는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는 것이 작지만 더 확실한 행복을 준다.

Z세대는 어느 세대보다도 사회가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세대이기도 하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은 Z세대의 자기애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Z세대를 위해 사회가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는데, 적어도 사회가 그들에게 불리함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키워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으로 운영되는 폐단을 보고, 수시 폐지와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제시된 대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전 과정에서 주도성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Z세대를 미래 인재로 기르는 방법

OECD 2030 보고서에서는 미래 인재의 중요 역량으로 학생주도성(Student Agency)을 꼽는다. 미래 인재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목표로, 변화에 대처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정의한다. Z세대가 가진 특징을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것인지 교육적 측면에서의 과제들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적합한 미디어 활용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소 TV보다는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고, 인터넷에서 동영상 강의로 주로 학습을 해온 세대들에게 1시간 이상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은 건지기 어려운 고문일 수 있다. 지식전달은 10분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관련된 영상을 찾아서 미리 학습하도록 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사전에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질의응답이나 토론, 문제풀이에 참여하게 하는 플립드러닝(역진행 수업: flipped learning)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교수자의 역할은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둘째, Z세대들이 개인적 웰빙을 넘어 사회적 웰빙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Z세대들이 나라의 위대함을 믿으면서도 나 혼자로서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와 의미 있는 관계를 쌓도록 하는 교육이 요구된다. 학교와 지역사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시민 교육이

증대되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유연한 맞춤형 교육체제의 개발이 시급하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6,900명으로 출생에서 사망을 제한 자연인구증가 수는 고작 2만 8,000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본주의 교육을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전제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일 것이다. 이제는 이를 넘어서서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교우 관계 등의 기본적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개개인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관련된 학습 이력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체제가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높이는 교육방법의 적용이 확산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력이 감소하는 데에 있다. 이런 면에서 미래교육의 방향은 오리무중, 짙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무슨 일에 대하여 갈피를 못 잡을 때 새로운 길을 찾도록 하는 데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제시된 대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전 과정에서 주도성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도성은 복잡한 문제해결 상황이 주어질 때 발현될 수 있고, 학습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행동으로 습득될 수 있다. 학습자 주도적 학습방법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Z세대여, 네트워크는 범위보다 밀도가 영향력이 크단다. 단 한 명이라도 생일을 맘껏 축하하고 축하받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렴. 네 생일을 축하해! 🎉

뉴미디어적 학습자의 등장과 교육적 대응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학습방식을 보인다.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학습을 받아온 기성세대와 달리, 이들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훨씬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다. 뉴미디어가 요즘 청소년들의 학습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법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눈부신 기술문명의 발달은 현대인의 삶의 방식과 일상적 경험들로 하여금 다양한 기술과 도구들에 의존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의존성은 사람들의 생활과 행동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학습방식에도 큰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뉴미디어, 휴대용 단말기 등이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아날로그적 환경에서 나고 자란 기성세대와는 생활 방식이나 사고 혹은 학습방식 등 여러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세대의 학습방식에는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포스트현상학(post-phenomenology)이라는 최근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포스트현상학으로 본 디지털 세대 학습방식

포스트현상학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존의 현상학 이론의 대표적 갈래인 메를로-퐁티(Merleau-Ponty, 1966)의 현상학과 후설(Husserl, 1970)의 현상학이 모두 육체와 정신을 구별하는 이원론적 철학이라는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포스트현상학은 인간 경험의 결과인 지식(정신)과 지식을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두뇌(신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원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와 그 존재가 수행하는 학습을 이해하려는 관점이 다(Ihde, 1995). 이는 사고의 주체로서의 인간(이성)과 사고

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질 및 신체)을 구별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근대적인 과학적 합리주의 세계관을 수립했던 데카르트적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데카르트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간은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이고, 사물이나 지식 및 정보는 학습의 대상이라고 간주함으로써, 항상 학습자와 학습을 분리하여 생각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이나 정보는 항상 학습자의 ‘외부’에 존재한다고 여기며,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외부의 지식이나 정보를 여러 가지 의도적인 학습 행위를 통해 학습자의 ‘내부’(두뇌)로 전이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바로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학습이론이 이해하는 학습의 원리이자 전략이었다.

하지만 포스트현상학에 따르면,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사고와 학습대상인 지식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학습의 주체와 학습의 대상, 행위자와 메시지, 사고와 지식 등의 이분법적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현상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뉴미디어의 등장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망(SNS)을 통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뉴미디어는 정보의 흐름이 비위계적이고 쌍방향적이며, 작가와 독자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메시지 자체의 내용적 진실성과는 별개로 매체 자체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Lister, Giddings,

Dovey, Grant, & Kelly, 2008). 즉,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뉴미디어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뉴미디어 환경이 청소년의 사고·학습에 미치는 영향

뉴미디어적 환경이나 도구들이 청소년들의 사고와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여러 원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소개해 보자.

첫째, 뉴미디어를 통해 흐르는 지식이나 정보는 인간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즉 인간의 사고, 지각, 의식, 주목이 파악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매개하거나 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미디어는 매우 촘촘한 방식으로 인간의 감각을 자극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이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Hansen, 2015). 따라서 뉴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지식이나 정보는 학생들의 무의식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훨씬 더 큰 학습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

둘째, 뉴미디어는 간접적이고 비인지적 차원에서 소통 주체들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의 미디어들은 지나간 정보를 수집, 기록,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뉴미디어는 미래의 행동을 예측해주고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추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뉴미디어는 사용자들의 메시지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 하고 싶은 말,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을 예상하고 추측해서 자발적으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성향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뉴미디어는 지식이나 정보들을 다루면서 추론, 예측, 융합과 재조합, 창의적 아이디어의 생성 등을 촉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과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Hansen, 2015).

셋째, 뉴미디어는 쌍방향 소통, 융통성 있고 신속한 정보

처리, 정보탐색과 추출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의 역할을 통해 인간의 학습이나 기억의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학습이론은 지식이나 정보를 인간의 생물학적인 두뇌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이론은 인간만이 학습의 주체이고, 학습의 결과는 두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라는 지극히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노트나 메모장과 같은 과거의 기억 보조물에서부터 오늘날의 웹하드,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들은 학습의 결과가 반드시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에 저장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며,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 학습기술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율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다. 즉, 뉴미디어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외부 기억 장소’의 역할을 하면서, 학습, 기억, 인출을 매개하는 핵심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Stiegler, 201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정리하자면, 오늘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에서 자연스럽게 뉴미디어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사고하고 학습하는 방식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교육은 종이 교과서, 정형화된 지식, 틀에 박힌 교수·학습 활동에 의존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세대가 지식과 정보를 다루고 경험하는 방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중요한 학교 교육의 변화를 한 가지만 들자면,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정보탐색, 외부 기억 장소의 활용, 지식의 융합적 활용 등을 포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뉴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과연 교과서에 ‘갇혀 있는’ 지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이 지식이나 정보를 학습하는 뉴미디어적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뉴미디어적 성격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새롭게 개발할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탁 쌤과 산골 학교 아이들의 좌충우돌 한 해 살이 검은 발자국



“6학년들이 외부 손님용 실내화를 신고 다녀요.”

행정실장이 직원회의 시간에 하신 말씀이다. 6학년이면 우리 학교에서 귀한 손님이나 마찬가지로 신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눈에 거슬린다는 말이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안 되겠다. 녀석들이 80킬로 안팎으로 몸이 불어서 작년까지 신던 자기 실내화가 작아지니까 문간에 놓인 어른 실내화를 아무렇게나 끌고 다녔나 보다. 아이들한테 말했다. 앞으로는 손님용 실내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절대로!

“6학년이 맨발로 급식소에 들어와요.”

오후에 영양사 선생님이 하신 말이다. 손님용 실내화 대신 맨발로 식당에 들어간 모양이다. 맨발로 다니면 발바닥을 자극해서 뇌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여럿이 밥 먹는 자리에서는 실례가 될 것 같다. 아이들한테 말했다. 맨발로 식당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어디서 분홍색 실내화를 한 켤레 가져왔다. 신발장에서 찾았다고, 작년 6학년 졸업생이 신다가 버려두고 간 실내화라 한다.

‘그래, 남자는 핑크지.’

쉬는 시간에 산처럼 무거운 윤서가 교실 바닥에 펼척 앉았다. 예술혼을 불태우는 중이구나. 포스터물감을 찍어 분홍 실내화에 칠한다. 붓이 슥 지날 때마다 분홍이 검정으로 변해 갔다.

“그거 신고 다닐 건 아니지?”

“카리스마요.”

내 물음에 짧게 대꾸하고는 고개 한번 안 돌리고 자기 하

던 일 한다. 내가 아이들 하는 일마다 참견하는 고리타분한 어른이 아니니까 그냥 지켜만 보았다.

‘포스터물감은 물 묻으면 지워지는데...’

어둠이 내리는 저녁 산처럼 장엄하게 버티고 앉아 오로지 그 작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공부 시작 시간이 되었지만 바닥에서 꿈쩍 않는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십 분만 더요.” 하는데 어찌겠나. 예술혼 불태울 시간을 더 내줄 수밖에.

드디어 붓질을 마친 윤서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뒷정리한다. 포스터물감 뚜껑 닫아 제자리에 놓고, 붓 빨아 붓통에 넣고, 검게 칠한 실내화 두 짝은 햇볕 잘 드는 창가에 세워두고, 그리고는 단정하게 앉아 수학 교과서를 폈다.

“점심시간이다!”

아이들이 식당으로 달려갔다. 움직이기 귀찮아하는 녀석들이 점심시간에는 갑자기 가벼워지며 발바닥을 불태운다. 나는 아이들 뒤를 따라 걸었다. 식판에 밥을 받아들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식당 바닥에 뭔가 있다. 동물 흔적 같다. 너구리는 아니고, 개 발자국도 아니고... 점점이

찍힌 검은 자국이 한 줄로 푹푹푹푹 이어지다가 6학년들 앉아 밥 먹는 식탁 밑으로 쪼르르 들어갔다.

오, 이건 카리스마 자국! 손님용 실내화는 안 된다 하고, 맨발도 안 된다 하고. 동생들로부터 오빠, 형 소리를 듣는 존경받는 6학년으로서 차마 핑크빛 실내화는 못 신겠고. 그래서 탄생한 검은색 카리스마 실내화가 남긴 발꿈치 자국.

“윤서야, 발자국이 너 좇아다녀.”

“에에?”

아래 한번 내려다보고 영양사 쪽으로 힐끗 돌려 눈치 보며 어쩔 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영양사, 조리사님들한테서는 별다른 눈치가 없다. 아이들 반찬 밥 담아 주느라 바빠서 못 봤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인지.

밥 다 먹은 윤서가 벌떡 일어서지 못하고 앉은 자리를 지킨 채 머뭇머뭇한다.

검은색 카리스마 실내화가 남긴 발꿈치 자국

“이거 신어.”

“히이...”

내가 벗어준 실내화는 발에 신고, 물감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밑바닥이 검고 분홍인 얼룩 카리스마 실내화는 손에 들고, 살금살금 살살 무사히 급식소 식당을 빠져나갔다. 금방 6학년 아이들이 손에 파란 걸레 하나씩 들고 식당으로 되돌아왔다. 바닥에 엎드려 싸악, 싸악. 사람들 많은 곳에서 친구 혼자 청소하게 두면 쪽팔린다나 어쩐다나 떠들어대면서 깨끗이, 깨끗이. 안경 쓴 4학년 여자아이가 밥 먹다 말고 “오빠들 왜 저래요?” 묻는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말투로 말했다.

“와, 6학년 오빠들 착하다. 급식소 선생님 고생하신다고 바닥 청소하네.”

다음날 내가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구해 왔다.

“이걸로 칠하면 안 지워진대.”

다시 칠했고, 창가에서 말렸고, 반짝반짝 빛이 났다. 아이들이 서로서로 신겠다고 난리다. 안 된다. 앞으로 우리 반에서는 윤봉길, 김구 선생처럼 아름다운 일을 해낸 사람만 신는 거로 규칙을 엄격하게 정했다. 이제부터 검은색 실내화는 동물 흔적 대신 ‘의리 의리’ 소리를 내며 발 딛는 자국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게 될 것이다. 2019년 우리 반 윤봉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 반이 ‘덜컹덜컹 골목길 음악회’ 나가기로 하고 달력에 표시한 날짜가 다음다음 주 화요일이다. 두 번째 공연이다. 이번에도 손수레에 악기를 싣고 마을 골목을 지나 바닷가 소나무 숲으로 갈 거다. 지금까지 만든 노래 여섯 곡을 부르고 돌아오려 했는데, 계획이 바뀌었다. 새로 한 곡 추가다. 새로 추가할 노래는 <검은빛 슬리퍼>. 윤서가 노랫말을 썼고, 친구들이 곡을 붙이는 중이다.

핑크빛 슬리퍼 핑크빛 슬리퍼
쪽팔려서 검은색으로 칠한다
최악 최악 변신!
역시 남자는 검은색 검은색이지
검은빛 슬리퍼 검은빛 슬리퍼
걸어가서 흔적을 남긴다.
하나둘셋넷 발자국 검은 발자국
평화로운 학교에 검은 발자국
발자국이 모두 멋진 검은 발자국

카리스마 풍으로, 의리의 곡조로, 씩씩하게 힘차게. 교실 창밖으로 빠꾸기 호반새 울고 우리는 노래한다.

“발자국이 모두 멋진” ㉠

필자는 196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같은 마을에서 살며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교생이 39명인 조산초등학교 산골 아이들과 산과 바다를 누비며 작지만 확실한 교육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학교상담 전문가가 전하는 우리 아이 심리 ‘마마걸’이 된 미연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지만, 어른에게 심하게 의지하는 아이들도 문제다. 성인이 돼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 손에 맡기는 아이의 모습으로 굳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 동지 속의 새끼 새가 아닐까?



문제

고등학교 2학년생인 미연은 전공 선택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다. 엄마는 교육학과나 심리학과를 가면 좋겠다고 하셨고, 미연은 문예창작과와 정치외교학과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교수인 엄마는 매사 현명하셨고, 이 문제에도 ‘미연아, 엄마가 말한 전공을 선택하면 힘껏 도와줄게. 하지만 다른 걸 선택해도 응원할 거야.’라고 하셨다. 엄마가 제안하는 코스는 엄마의 도움으로 순탄할 것 같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코스는 매력 있긴 하지만 어려워 보였다. 결정을 할 수 없어서 3만 원을 주고 점을 보고, 1만 원을 주고 타로 점도 보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연은 정체성 문제로도 혼란을 겪고 있었다. 사업가 아빠와 교수 엄마 사이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자라서 구김살 없는 분위기를 풍겼지만, 걸핏하면 친구들에게 ‘그런 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살았니?’ 혹은 ‘무식해!’라는 말을 해서 관계가 좋지 않았다. 하기야 친구가 왜 필요하랴? 어떤 문제든 엄마에게 물어보면 소크라테스와 공자님을 합한 것 같은 해결책이 자판기에서 나오듯 금방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고등학교에 들어오자 어느 순간 친구들이 자기보다 훨씬 성숙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애들은 나처럼 현명한 어머니도 멋진 아빠도 없는데, 언제 어떻게 나보다 더 어른스러워졌지? 나는 물어보고 아는데, 어떻게 애들은 스스로 답을 내고 책임질까?” 낯설고 두려웠다. 한편 엄마를 보면 ‘정말 우수하신 분이야.’ 하고 감탄하다가 ‘엄마 딸이라는 것만 빼면 난 아무것도 아닌 거네. 나는 뭐지?’ 하는 열등감에 빠졌다.

어느 때는 ‘나 정도면 최소한 장관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희망도 솟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난 아무것도 모르는 동지 속의 새끼 새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진단

미연이 상담실에 도움을 청하러 오자, 상담 선생님은 심리검사를 했다. 정신병을 측정하는 다면인성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동 경향성을 측정하는 성격 및 기질검사에서는 의존성이 백분위 99.2로 나타났다. 아이코! ‘마마걸’이라는 것이다! 이상적인 부모님과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결정력과 자아정체성이 없어서 남의 지시를 기다리는 의존적인 사람이 될 줄이야!

지도

미연 어머니께서 상담실에 오셨다. 심리검사며 상담방식에 대해서도 뉘히 아는 분이었고, 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경청하셨고, 의견을 말할 때도 매우 겸손하셨다. 상담 선생님도 어머니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고, 어언간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닐까?

아이들은 어릴 적 엄마를 신처럼 믿고 따른다. 엄마에 대한 이상화 백 퍼센트고 의존성도 백 퍼센트다. 그러나 엄마의 못남과 실수를 통해서 이상화 비율을 낮추고 점차 자신을 믿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좌절과 소외가 있어야 자녀는 개성과 주체성을 발달시킬 기회를 얻는다. 정말 역설적인 일이 아닌가! 탈무드에 ‘자녀 교육의 마지막은 자녀를 담 위에 앉혀놓고 뛰어내리면 받아준다고 한 다음 받아주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울면서 항의해도 설명 없이 집으로 돌아오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세상의 부조리에는 때로 논리적 설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 부모가 완전하면 자녀는 부모를 이상화시키는 시기가 길어진다. 그 결과 자녀는 청년기가 되어도 유년기에 머문다.

상담 선생님과 미연 어머니가 대화를 나눈 후, 미연의 집에는 변화가 생겼다. 언제나 현명한 대답을 하시던 어머니가 통명스럽게 ‘글쎄, 잘 모르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 ‘예쁜 우리 딸, 너무 서두르지 마. 내가 건물을 네 몫으로 줄 테니 그걸로 수입을 얻으면서 천천히 결정해.’라고 하시던 아빠가 ‘넌 네 힘으로 살 생각을 해야 해.’ 하며 엄해지셨다.

얼마 뒤 미연이가 와서 말했다. “전 작가가 될래요. 제 글솜씨로는 밥벌이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 해볼게요.” 미연아 드디어 독립했구나. 무섭기도 할 텐데 잘 극복하는구나. ㉔



한 학기의 학생 생활기록,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Q. 벌써 한 학기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아이들의 한 학기 교육활동과 학교생활을 담아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죠. 아이들의 발달상황을 담으면서도 각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담고 싶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지 고민합니다.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맘때면, 선생님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학급당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30여 명이 훌쩍 넘는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발달상황을 각자의 개성을 담아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 교과에 걸쳐 아이들의 특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경력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스 이용한 학생 생활 기록은 이렇게...

01 각 과목 영역별 성취기준의 성취 수준
 학기가 시작되기 전 아이들과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사가 운영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이 도달할 성취기준에 맞는 평가 계획을 미리 세웁니다.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 후 미리 세워두었던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를 나이스나 다양한 기록부에 누가 기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별 성취 수준을 서술형으로 기술합니다. 이때 과목별 평가내용이 기록된 학생별 카드를 만들어서 다이어리처럼 그때 그때 관련 내용을 기록해둔다면 나이스에 평가결과를 누가 기록하거나 평어로 기술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성취기준이 줄어들면서 단원별로 중복이 되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복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성장한 정도를 기술해준다면 그야말로 학생별 평어 작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2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등 다양한 활동 기록
 교과 외의 다양한 활동 등은 창체, 진로, 봉사 영역으로 누가 기록하고 서술형으로도 기술합니다. 교과 평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창체 영역은 비슷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로 일회성 행사(계기교육)나 연속적인 활동이라도 단기적으로 마치는 활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활동 마무리에 아이들의 소감을 받아놓으면 조금 쉬우면서도 천편일률적인 멘트에서 벗어나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03 행동발달상황 기록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내용으로 주로 기본생활습관, 수업활동 시의 태도, 교우관계 등 학생 생활 전반의 모습에 대해 서술형으로 기술합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행동발달상황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동발달상황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아이들과 학부모와의 상담내용(걱정이 되는 부분, 성장하길 바라는 내용, 아이가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 등)을 잘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의 성장이 어떠한지를 기술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옛날부터 받아왔던 “타의 모범이 되고~”식의 비슷한 행동발달상황에서 벗어나 개개인별의 성장 기록이 가능해집니다.

‘성장 참조형 통지표’ 이용한 학생 생활 기록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와는 별개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성장 참조형 통지표’(기존의 성취기준 중심 통지표에 학생 개개인의 성장 과정을 함께 공지하는 형태의 통지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성장 참조형 통지표에는 ①학생들의 과목별 성취기준에 대한 평가방법과 성취 수준을 단계형이나 서술 형태로 기록합니다. ②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진행한 수업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안내를 합니다. 아이들은 한 학기 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안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학생 자기 평가가 가능합니다. 학기 초에 자신의 기본생활, 수업활동, 개인적인 성취 목표 등을 정해 놓고 학기 말에 자신의 성장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의 자신의 배운 점과 느낀 점을 기록합니다. ④선생님이 학생 개인별 성장에 따라서 서술형으로 기록합니다. ⑤한 학기 동안의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기록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통지표를 꿈꾼다

성장 참조형 통지표는 평가의 영역 안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이므로써 학생에게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줄 수 있고, 학부모에게는 우리 아이의 배움에 대해 교사, 학생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우리가 만나서 교육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 학기 말 통지표를 통해서라도 아이의 생활과 배움에 관해 가정과 연계해 보고 함께 고민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선생님들의 마지막 과제인 통지표를 작성하느라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훈령과 매뉴얼에 따라서 기록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통지표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②

영화 ‘기생충’을 통해 본 빈부격차



흔히 기생충(寄生蟲)이라고 하면 다른 생명체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사실 모든 생명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즉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로부터 무언가를 획득하고 섭취해야 한다. 우리 인간도 이 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획득과 섭취가 부당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정당한 방식으로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획득하며 살아온 삶, 즉 기생(寄生)의 삶이 존재해왔다. 힘이 정의인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삶이 많이 존재해왔다. 아니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조차도 이 정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이 기생의 길을 선택해왔다.

그러나 힘이 정의를 지배하거나 기생이 존재하는 사회는 정글의 사회일 수밖에 없으며, 그 속에 살아가는 구성원들도 야만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강인한 힘이든 비열한 힘이든 힘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려는 사회는 서로가 인격체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이다. 누구나 인격체로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것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소유하는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영화 ‘기생충’은 이런 기대에서 벗어나는 가족들의 비애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시장이 지배하는 경쟁 사회에서 추락한 기택네 가족이 최첨단 과학기술 사회의 능력자 박 사장네 가족에 기생하면서 발생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마치 헤겔이 자신의 『법철학』에서 가족과 시민사회의 변증법적 대립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듯이, 정서적 연대가 강하게 작동하는 가족과 치열한 생존 논리가 작동하는 시민사회 사이에 전개되는 분열과 파괴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지하

기생충 Parasite, 2019
 감독 봉준호
 장르 드라마 | 131분 | 한국 | 15세 관람가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는 소극적 차원의 정의 사회를 넘어 타자의 가난과 고통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배려하는 적극적 차원의 연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의 삶에 묶인 가족과 고급주택의 삶을 누리는 가족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 장벽은 두 집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저택 내부의 지하와 지상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 가족 사이의 차이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를 넘어 문화적 차별로까지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냄새’다. 박 사장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냄새, 그의 가족들이 특별하게 느끼는 반지하 인생의 냄새, 이 냄새는 도무지 수용하기 어려운 불쾌한 냄새다. 이 냄새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의 주장처럼 이들 가족들 사이에 서로를 구별짓는 아비투스(habitus,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내면화된 성향의 체계)로 자리하여 문화적 차별을 낳는다.

경제적 차이를 넘는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려면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 차이를 넘어 문화적 차별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은 인간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어, 냄새가 살인을 부르듯,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내몰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의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정의의 문화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정의는 기본적으로 권리담론에 기초하고 있다. 즉 정의는 각자가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취득하고 소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정의의 문화만으로는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소유 차이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차별의 문화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는 소극적 차원의 정의 사회를 넘어 타자의 가난과 고통을 섬세하게 바라보고 배려하는 적극적 차원의 연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 중심의 사회

는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부당하게 침범하지는 않지만, 소수자와 약자에 작동하는 배제의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의 중심의 사회가 낳는 경제적 차이가 문화적 차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즉 냄새가 사람을 살해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수자 및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좀 더 적극적인 배려 사회를 일구어내야 한다.

다른 한편 정의 사회에 밀려난 구성원들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기생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부당함을 지양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기생의 삶이 가진 자의 성공 중심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영화에서도 보여주듯이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는 자와 여기에서 밀려나 계단 아래로 떨어져 지하로 추락해야 하는 자 사이의 삶의 처절한 아픔이 자리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들의 이익과 성공에 몰입한 나머지, 이로부터 비롯되는 타자의 고통을 더 깊이 고뇌하지 못하는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국가 명령사회와 시장 경쟁사회를 급진적으로 겪으며 살아온 우리 사회에 암초처럼 자리하고 있는 유사공동체주의(집단이기주의)와 유사자유주의(개인 이기주의)의 여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합리적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공감적 개인의 연대성을 함께 조화시켜내는, 그래서 서로 화이부동(和而不同)하는 무지개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차별을 낳는 아비투스를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이 아비투스로부터 비롯되는 가족들 사이의 비극도 지양해낼 수 있을 것이다. ㉠

하늘길과 바닷길 사이 도시, 사천을 머금다

산과 눈 사이에 난 길을 따라 달린다. 활주로 같이 트인 도로가 검은 물결이 되어 넘실거린다. 청명한 하늘과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공기와 멀리서부터 불어오는 바다 냄새. 막힐 것 없는 아스팔트 도로를 관통하며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모르겠다던 장자의 말을 곱씹는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물이 밀려 들어오고 페달에서 발을 내리면 물결이 밀려 나가고. 속도를 더하고 덜어내는 동안 나는 어느새 물길이 되어 있다. 바다의 넘실거림과 하늘의 푸르름을 머금은 길을 따라 도착한 곳, 7월의 여행지는 사천이다.



항공도시 사천을 알리는 항공우주박물관

바닷길을 뒤로하고 하늘길을 먼저 찾는다. 국산 항공기 부활호를 제작한 도시이니만큼 사천공항 근처에 자리한 항공우주박물관이 이번 여정의 첫 목적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하여 제3훈련비행단,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센터 등의 기관이 자리 잡은 사천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항공도시다. 항공우주박물관은 항공도시의 면모를 알리기 위해 2002년 개관, 지역사회의 첨단항공과학을 소개하는 한편 항공 우주 문화 체험 기회 제공에 일조하고 있다.

전투기, 훈련기, 구조헬기, 정찰기 등으로 채워진 야외 전시장을 지나온다. 각양각색의 비행기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귀에 담으며 이른 곳은 항공우주관이다. 이곳은 항공발달사를 비롯해 항공기 모형, 우주 관련 전시물로 채워져 있다. 전시는 자유수호관으로 이어진다. 2,600여 점의 사진, 액자, 군장, 기념품 등으로 꾸며진 이곳에서 전쟁의 참상과 전장에서의 군인들의 모습을 마주한다. 전시품을 눈에 담으며 푸른 잔디를 배경으로 평화롭게 잠든 야외 전시장 비행기들을 겹쳐본다. 날개 달린 것들을 전투기가 아닌, 전시물로 만나게 된 이 평화가 세계 곳곳에 깃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슴을 채워온다.

노산공원 속 호연재와 박재삼문학관

노산공원으로 간다. 싱그러운 신록을 한가득 머금고 이른 곳은 한옥 모양의 호연재다. 삼천포 초등학교의 전신이기도 한 호연재는 일제 치하에 그 자취를 감추었다가 2008년 복원되어 현재는 여러 가지 교육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건물 자체가 사연이 되어 남은 호연재를 찬찬히 눈에 담으며 이 나라의 굴곡진 역사를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긴다. 멀지 않은 곳에 박재삼 문학관이 있다. 공들여 조탁한 언어로 한국의 '한'을 탁월하게 담아냈다는 평을 받는 시인의 집필실과 저서를 눈에 담는다. 시 낭송 방에 들러 시인의 시 '천년의 바람'을 읊어 본다.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소나무 가지에 설 새 없이 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 아, 보아라, 보아라. 아직도 천년 전의 되풀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시의 여운이 깊다. 시구절을 중얼거리며 팔각정으로 향한다. 퍼런 물결과 삼천포 대교가 눈을 채워온다. 다리와 바다와 산.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멋들어진 풍경을 보며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고립된 섬이 되어가는 내 미움함을 마주한다. 시인의 말처럼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해도 '지치지 말 일'이다. 팔각정 앞 계단을 내려와 물고기상과 삼천포 아가씨상을 만난다. 은방

울 자매가 불렀다는 '삼천포 아가씨'가 울려 퍼진다. 입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거라는 아가씨의 노랫말이 귀를 두드린다. 기다려 보자,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직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후회 없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가슴을 매만져온다.

사천바다케이블카, 발아래 펼쳐지는 바다 풍광

노산공원을 나와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타러 발길을 옮긴다. 2018년 4월 13일 개통된 '사천바다케이블카'는 총 2.43km를 운행한다. 그중 816m가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어 바다 풍광은 물론 죽방렴, 창선·삼천포대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초양도와 바다와 각산을 아우르는 케이블카는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과 밀이 보이지 않는 일반 캐빈 두 종류가 있다. 높은 곳이라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여객(旅客)이 선택한 케이블카는 일반 캐빈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가로지른다. 순식간에 대교와 바다와 산과 섬을 지나온다. 발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이 꿈만 같다.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구름 위를 걷듯 초양도와 늑도 거쳐 각산에 이른다.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한다. 하트 포토존과 봉화대를 지나 전망대에 도착한다. 눈이 시릴 정도로 경이로운 풍경 보여준 것만으로도 모자란 듯 사천은 또 하나의 장관을 선사한다. 삼천포 바다의 한려해상이 한눈에 들어온다. 정수리 위의 해와, 별이 되어 반짝이는 바다 위 햇살과, 흠에 서린 이야기를 전해오는 섬들. 수평선 어딘가에 시선이 머문다. 바다와 하늘의 닿음이 빛어낸 잔잔한 적요함이 평정을 불러온다. 아등바등,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바다에 내려놓는다. 그렇게 다 던져두고 나니 체증이 가신 듯, 갑갑했던 속이 트여온다.

유람선을 타러 가려던 발길을 돌려 실안 해안으로 방향을 튼다.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앉아 수평선을 넘어 다본다. 파란 물결 위로 노랗고 붉은 해가 흠뻑 젖어지기 시작한다. 새들의 지저귀는 빛이 눈을 간질이고 들어온다. 한반도 남쪽 끝에 자리한 작은 도시에서 받은 위안과 감동이 농묵(濃墨)이 되어 번져온다. 오늘의 석양은 지지지만 사천이 전해준 풍경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으리라. ☺

1 사천 항공우주박물관
2 박재삼문학관
3 삼천포 아가씨상
4 호연재



NEWS BRIEFING

2019. 07 .

초등 예비교원 SW교육 지도 역량 높인다



초등 예비교원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국립초등교원양성기관 12개 대학에 학교별로 2억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은 현직 교사의 직무 연수 외에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예비교원의 지도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는 모든 초등학교의 5학년 또는 6학년 실과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초등 예비교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은 공동참여 과제와 대학별 과제로 구성된다. 올해 공동참여 과제는 예비교원의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의 향상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성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별 과제는 전체 재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심화 전공 내실화, 소프트웨어 기반 융합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과정 개선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 환경 개선, 재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 예비교원 소프트웨어 교육 실습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비교원의 실제적인 지도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기업의 만남...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시작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고도화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17일 대학교,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개관과 선도사업 공모 일정, 평가 기준 등을 소개했다.

선도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8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기준에 따라 올해 8월 말 2~3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복지·편의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메이커스페이스, 엑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 지원 및 대학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지원될 계획이다.

직업계고, 학과개편 통해 신산업 인재 육성

학과 개편 사례

학교명	기존학과	신규학과
덕일전자공업고	전자통신과	로봇드론과
은평메디텍고	의료정보시스템과	e-스포츠과
정화여자상업고	병원사무관리과	콘텐츠 크리에이티브과
울산산업고	도시농경영과	반려동물과
동두천중앙고	정보전자과	스마트 로봇과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가 산업 수요를 반영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편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개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산업계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위촉,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과개편 구상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심사하여 총 91개교 125개 학과의 개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에서는 필요성 및 성공 가능성과 더불어 신산업 분야, 지역전략산업 분야, 뿌리산업 분야 여부 등을 검토했다. 이에 기계과는 스마트공장 운용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기계과로, 지적건설과는 드론을 활용하는 드론공간정보과로, 금융마케팅과는 IT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금융경영과로 개편하는 등 기존 학과를 고도화해 신산업 관련 분야로 전환하는 사례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125개 학과 중 절반 이상의 학과가 변화하는 산업 수요 및 직무 내용을 반영하여 동일한 교과군 내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고도화하였다. 타 교과군으로 학과개편을 추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인 정보·통신 분야와 콘텐츠·디자인 분야의 개편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확정 명단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내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이 확정된 학교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신입생 모집 전까지 학교가 학과개편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편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특성 맞춤형 초등 돌봄서비스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자체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5일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1차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 지자체 맞춤형 돌봄 운영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초등학생 돌봄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서울 구로구·노원구·성동구·성북구, 대전 서구, 경기 시흥시·오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9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작년 6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지자체는 돌봄 전담조직 설치, 돌봄기관 간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및 온종일 돌봄 조례 제정 등 지역의 돌봄 기반을 구축했다. 서울 노원구는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놀이 및 독서 지도를 실시했고, 충남 홍성군은 학교 내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해 돌봄서비스를 운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지역 내 돌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돌봄 생태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돌봄을 추진해 나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지난호 독자 리뷰



[꿈이 영그는 현장_부산 송정중학교] 최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둔 학생을 만났었다. 그래서 이번 기사를 더 관심 있게 보았는데, 시설과 운영 방식 등이 보기 좋아 이런 학교가 주변에도 많이 있으면 부적응을 겪다가 학교를 떠나게 된 친구의 힘들었던 상황이 조금은 덜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생각보다 주변에 학교 부적응으로 고통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고 접근이 쉬워져서 아이들의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달래줄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니터단 이슬이

[선생님은 연구중.연리지 인성교육연구회] 단순히 인성교육의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교실 문턱을 넘어 삶의 장면에게까지 스며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소개해주는 다양한 방법을 토대로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단 김화홍

[초점.수학여행에서 만난 산불] 4월 강원도 산불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때 학생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전소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뉴스를 보며 '어떻게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현화중학교는 형식적인 안전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 대처가 잘 이루어진 사례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이 활성화 돼 학생들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니터단 이채은

ENENT

7월호 <특별기획>을 읽고 '안전'을 키워드로
톡톡 튀는 재미난 2행시를 지어주세요.

다음 달 5일까지

'행복한 교육(<https://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02-2271-0992

지난호
당첨자

김진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이은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윤영성 전남 무안군 삼향읍

발행일 2019년 7월 15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편집인 대변인 한상신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성부
사무관 박대선 주무관 박형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변인실 323호

편집실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양지선 (객원)김혜진
사 진 김경수 이대원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TEL 02-2271-0992

학교 공간으로 알아보자!
요즘애들 VS 옛날애들

교실 내가 요즘애들이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즘애들
밝고 화사해요!
맘껏 뛰놀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의 교실

옛날애들
딱딱한 직사각형
우리 모두 하나
 똑같은 교실

내가 옛날애들이면 '슬퍼요'를 눌러주세요

복도 내가 요즘애들이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즘애들
우리 복도에서 만나
놀이터, 전시공간 등
다양한 기능의 복도

옛날애들
뛰지마세요! (별점)
그러나 달리고 싶은
길게 늘어진 복도

내가 옛날애들이면 '슬퍼요'를 눌러주세요

계단 내가 요즘애들이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즘애들
우리만의 아지트
안전하게 놀이가 가능한
계단감지 않은 계단

옛날애들
엄숙한 분위기.
나무난간, 계중시계,
똑같은 중앙계단

내가 옛날애들이면 '슬퍼요'를 눌러주세요

도서관 내가 요즘애들이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요즘애들
독서는 물론,
토론하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도서관

옛날애들
절대엄숙!
책장만 길게 늘어진
답답한 도서관

내가 옛날애들이면 '슬퍼요'를 눌러주세요

학생들이 주도하는
미래 교육 배움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

교육부

